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김시습 茶詩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 혜 경

김시습 茶詩 연구

2011년 2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 혜 경

김시습 茶詩 연구

지도교수 이 상 원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 혜 경

최혜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준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원 인

2010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범위	1
2) 연구사	3
2. 茶詩의 개념 및 김시습 다시의 特徵	5
1) 다시의 개념	5
2) 다시의 형식과 茶語	8
3) 다시의 내용적 특징	15
3. 김시습 시에 나타난 차의 의미	35
1) 고독한 유람의 반려자	35
2) 無心自空의 매개체	44
3) 茶情禪交의 산물	58
4. 결론	68
참고문헌	70

ABSTRACT

A study on Tea-Poetry of Si-seup Kim

Choi, Hye-gyung

Advisor :Prof. Lee Sang-W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categorized the concept of poetry on tea by Kim Si-seup into poetry in the narrow sense and that in the broad sense in order to examine what meaning tea had in his poetry on tea.

Kim Si-seup described conflicts and agony on reality as an intention to control himself while traveling mountains and streams of his country. During his solitary traveling, he consoled himself through asceticism towards enlightenment.

Tea is one of his friends and a companion for Zen-practice. The intention to transcend himself was sublimed through an act of finding truth and he practiced ideas of transcendence in his life.

He cultivated tea and made tea carefully to practice the idea of 'tea and Zen are unified into one'. Tea to him was a medium to reach the state of indifference. He exchanged tea based on Zen-practice with enlightened monks and tea guided him to accomplish Buddhist teachings.

key words :poetry on tea, tea, transcendence, Self and matter is one, travelling, indifference, Zen and tea are unified into one, exchange for Zen, friendship through tea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본고의 연구목적은 김시습의 시들 중에서 차와 관련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시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한 후 그것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그의 시를 통해 김시습의 삶에 있어서 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그간 차생활 부분에 치중하여 김시습의 다시를 연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김시습 다시에 대한 실상을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다.

김시습은 조선전기 15세기에 살았던 생육신의 한 사람, 또는 방랑객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일생의 대부분을 정치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저항하며 승려로, 걸인으로, 문학가로, 시인으로서, 茶人으로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형성하였다.

그는 세속적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수직적 초탈을 지향하는 차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구도적 수행으로 체화하였다. 그는 탈속한 자기의 응시 안에서 차1)를 도반이자 반려자로, 깨달음을 향한 매개체로, 禪交의 산물로 이끌어 자

1) ‘차’와 ‘다’의 쓰임새 : ‘茶’는 다른 글자와 어울렸을 때 ‘차’로도 읽히고 ‘다’로도 읽혔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엽에는 ‘차’나 ‘다’로 쓰이는 경우가 구분 되어, 독립어 ‘茶’는 ‘차’로 쓰였으며 불교 용어나 궁중 용어로는 ‘다’로 쓰였던 것 같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직후에 나온 『月印釋譜』 제10에는 ‘那낭茶망’ ‘伽茶伽茶짜짜짜짜’라 하여 ‘따’와 ‘짜’ 즉 ‘다’와 ‘차’의 두 가지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伽茶라함은 절 ‘寺刹’자를 뜻한다. 1527년에 최세진이 편찬한 『訓蒙字會』에 ‘茶 : 차 다’ ‘茗 : 차 명’이라고 한 것을 보면 ‘차’는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뜻이며 이미 ‘차’가 대중적으로 쓰여 지고 있었고, 한자의 음으로는 ‘다’나 ‘명’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고려 중엽에 송나라 사람 손목이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茶曰茶, 茶匙曰茶戍”이라고 썼음이 『鷄林類事』에 쓰여 있다. 중국은 지방의 방언으로 ‘다(te),’로 쓰는 곳도 있으나 주로 ‘차’라 하며 ‘차’와 ‘다’를 겸하여 쓰지는 않았으므로 위의 네 개의 ‘茶’는 똑같이 ‘차’로 발음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쓰였던 ‘茶飯’은 『杜詩諺解』에 ‘차반’이라 쓰여 있다. 이와 같이 혼동하여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염집의 명절 제사에는 ‘차례(茶禮)’ 혹은 ‘차사(茶祀)’라고 쓰여 왔다. 조선 말기에도 ‘차약’ ‘차관(茶罐)’이라 했다. 그러나 궁중 용어로 승냥을 ‘다’라고 했고, 부처님께 올리는 찻그릇은 ‘차기’가 아니라 항상 ‘다기’라고 불렀으며, ‘다게(茶偈)’ ‘다비(茶毘)’ ‘시다림(尸茶林)’ ‘다각(茶角)’ 등의 불

기초탈의 가치로 승화시켰으며, 物我不二의 선적 정취를 시화하였다. 현실 중심의 이상과 가치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초탈한 정신세계는 자신을 찾기 위한 역정의 행보였으며, 이는 그의 시작품 속에서 다양한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의 다시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과 분석에 따른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시습은 조선전기 茶人들 중 차에 관련된 시를 가장 많이 남긴 시인 중 하나다. 김시습의 시 2,200여 수 가운데 茶를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삼은 작품은 67편 73수에 달한다.²⁾ 이들을 대상으로 김시습의 다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김시습의 시 내용 중에서 ‘차’자의 쓰임에 관계 없이 ‘차’자가 들어 있는 시들을 모두 다시라고 정의하고 이를 다시의 범주로 삼고 있어, 실질적인 ‘차’에 대한 의미보다는 ‘차’ 용어의 有無에 더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다시의 개념을 분명히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을 새롭게 분류하여 그것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다시로 분류하였으나 본고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다시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별도의 장을 설정하여 그 시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차의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교 용어가 모두 ‘다’를 쓴 것을 보면 ‘다’는 궁중 용어나 사찰 용어로서 존중의 뜻이 있고, ‘차’는 일상적인 여염집의 경우에 불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1) ‘차’로 쓰이는 경우 : 작설차(雀舌茶), 선차(禪茶), 햇차, 산차(山茶), 찻그릇, 찻잔, 차술, 찻잎, 찻자리, 차관(茶罐), 차완(茶碗), 차탁(茶托), 차례(茶禮). 2) ‘다’로 쓰이는 경우 : 팽다(烹茶), 행다(行茶), 헌다(獻茶), 진다(進茶), 깎다(喫茶), 음다(飲茶), 투다(鬪茶), 다비(茶毘), 다게(茶偈), 다도(茶道), 다연(茶煙), 다회(茶會), 다옥(茶屋), 다정(茶亭), 다관(茶罐), 다식(茶食). 3) ‘차’와 ‘다’를 함께 쓰는 경우 : 차례(茶禮)-다례, 차담상(茶談床)-다담상, 차모(茶母)-다모, 찻잔(茶盞)-다잔, 차상포(茶床布)-다상포, 차관(茶罐)-다관.

육우의 『茶經』에는 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 이름은 차라고 하며 가(槓), 설(護), 명(茗), 천(莖)이 라고도 한다. 주공(周公)은 「가(槓)라는 것은 고도(苦茶)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양집극(楊執戟)은 「촉(蜀)의 선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설(護)이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곽홍농(郭弘農)은 「일찍 만 것은 차(茶)라 하고 늦게 만 것은 명(茗)이라 하며, 혹은 천(莖)이라고 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 2) 임준성, 「선다일여의 시경 - 매월당의 다시를 중심으로 - 」,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문화회, 2006, p.273. 그러나 작품수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임해봉은 시 67편 73수, 산문 2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석용운은 시 63수 서1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梅月堂集』³⁾, 『국역 매월당집』⁴⁾을 주요 텍스트로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2) 연구사

그동안 김시습의 시에 대한 연구는 백성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는 애민시, 전국을 기행하면서 쓴 기행시, 자연의 대상을 예찬하는 영물시, 자신의 감정을 술회하는 술회시, 불교에 귀의한 불교 사상에서 바라본 불교시 등의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다.

그동안 김시습 다시에 대한 연구는 김시습의 음다생활과 차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부분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사상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불교사상에서 다선일여의 선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주연은 김시습의 詩를 통해 그의 茶道와 조선전기의 飲茶 문화를 연구하여, 詩를 통한 茶 문화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⁵⁾ 정영호는 김시습의 차생활에 관련된 詩를 노장사상에 견주어, 김시습이 유교를 저버리고 불교를 이교로 취급하여 노장의 도가적 사상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김시습의 자연합일의 세계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과 상통한다고 보았고, 장자의 ‘以明(고요하여 텅 빈 마음으로 무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세속의 시비를 벗어난 김시습의 초월적 세계 안에 있다고 함으로써,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수용을 배제한 부분적 측면에서 김시습의 다시를 바라본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⁶⁾ 임준성은 김시습 詩에 대한 茶禪一如의 사상을 승려와의 교유를 통한 相卽相入의 관점에서 논하였다.⁷⁾ 차는 이들이 교유하는 데 적잖은 기능을 하였으며, 정과 경이 相卽

3) 『梅月堂集』, 『한국문집총간』13, 민족문화추진회, 1988.

4) 『국역 매월당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5) 이주연, 「매월당 김시습의 다도 연구」,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정영호, 「김시습 다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논문집』제20집, 부산여자대학교, 1999, pp.105~117.

7) 임준성, 「선다일여의 시경 - 매월당의 다시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pp.273~293.

相入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禪茶一如의 경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성현의 도와 유학적 이상 실현을 위하여 불도를 이루기 위해 차를 詩化하였다고 논하였다. 또한 그는 차를 中正의 美學으로 보아 유가철학적 사상에서 보다 문학 비평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⁸⁾ 김미숙은 김시습의 詩를 중심으로 매월당의 茶道觀을 유·불·선의 사상적 관점에서 다루었고, 그가 기행 중에 마신 行茶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김시습 詩에 나타난 차생활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조선전기 김시습과 같이 茶를 교유하거나 문하생들에게 茶風을 이어 준 사람들의 차 관련 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에 당시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다인들의 시를 살펴본 바, 조인숙이 서거정과 김시습을 중심으로 그들의 차 관련 詩와 文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의 茶 문화사와 茶道思想, 차 관련 시의 성격과 의의를 연구한 것이 현재까지의 결과이다.¹⁰⁾ 조인숙은 김시습의 유불도의 圓融無碍한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동화한 선취, 검박하고 자득한 차 생활, 그의 다맥과 맺어진 교유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도관을 정리하였다. 특히 서거정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의 스승인 이계전의 다맥을 살펴봄으로써, 김시습과 서거정의 차 문화는 고려 말 이색으로부터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시습 차 관련 시의 의의로는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다도관과 수행과 오도의 차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시습 다시 연구는 다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김시습 다시를 연구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차 관련 용어가 사용된 시들을 대상으로 그의 차생활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와 일반 차 관련 시들을 구분하여 별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8) 임준성, 『梅月堂의 詩世界-中正의 美學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9) 김미숙, 『매월당 김시습의 다도관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 조인숙, 『조선전기 다시연구 -서거정과 김시습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茶詩의 개념 및 김시습 다시의 特徵

이 장에서는 김시습 다시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시습 다시의 범주를 확정해야 한다. 김시습 다시의 범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시의 개념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다시의 개념

다시란 茶와 詩의 복합어로서 차를 주제로 창작한 시를 말한다. 차를 주제로 지은 시의 범위는 차를 통한 인간의 정서나 사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차를 주제로 하여 사상과 감정을 읊은 많은 차 관련 시들이 창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다시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논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천병식은 차를 통한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비롯하여 종교, 학문, 예술 등 일상생활 전반을 다시의 내용으로 삼고 “茶詩 또는 茶讚詩란 茶를 중심한 茶水 및 茶器具를 통하여 茶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창작된 시작품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¹¹⁾라고 하여 차생활 및 차의 정신적인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박정도는 “茶詩는 茶를 제재로 삼아 작자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다양한 묘사 방법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나타낸 詩”라고 정의하여 다시에 사회적 환경도 포함시키고 있다.¹²⁾ 백기란은 “‘茶’자가 들어간다고 하여 모두 茶詩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茶’자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茶를 소재로 하여 추구하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 혹은 ‘茶를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하여 창작된 것’ 이 둘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시킨다면 茶詩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11) 천병식, 『韓國茶詩의 主題考察』, 『인문논총』 제4집, 아주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3.

12) 박정도, 『李奎報 茶詩 小考』, 『한국어문교육』 제7권, 한국교원대학교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8.

13) 백기란, 『茶松子 茶詩 考察』, 『한국차학회지』 제8집, 한국차학회, 2002.

라고 다시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茶’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차의 주제나 정신이 나타난 시를 다시의 범위로 삼았다. 송경섭은 차를 소재로 한 시를 영물시의 범주로 보고 차의 쓰임새, 형상, 신흥 등의 특징을 시화한 것을 다시로 정의하고 있다.¹⁴⁾ 영물시는 주변 사물을 주요 소재로 하여 세밀한 관찰과 세부 묘사를 통해 얻어지는 특정한 정서를 시로 표현한 작품을 일컫는데, 이에 견주어 차를 영물시의 하나로 보고 차의 고유성을 시화한 것을 다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 다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茶’자나 ‘茗’자 또는 차 관련 용어가 있는 시들로 차생활과 차의 정신을 나타낸 일련의 시작품들을 다시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시의 개념들에 차의 정서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차를 마시고 즐기는 신분층들이 왕족과 양반사대부들, 승려, 문인 등 주로 식자층들이어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 속에 포함된 차의 영역까지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차를 소재로 시를 쓴 것은, 단지 차를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고아한 사대부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차의 성정을 그들의 정신세계로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는 뜻이 곧고 학문이 깊은 사대부들의 사상과 철학 속에 스며들어 그들 다시의 詩材로 사용되었다. 석용운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차를 끓이고 마시는 가운데 종교사상이나 철학을 茶의 정신으로까지 확대 발전시켰으며, 법도와 체계를 세워 차의 기능을 고양시켰다. 유가의 유학자들은 그들의 윤리의식에 차를 유입하여 茶禮儀式을 제정하였으며, 도가의 사상가들은 자연과 합일하려는 神仙思想에 의하여 풍류의 정신세계를 완성하였다. 또한 불가의 승려들은 선사상에 차를 끌어들이어 선의 경지로 차를 승화시켜 茶禪一如의 사상을 詩로 표현하였다.¹⁵⁾

이는 차가 사대부나 승려 등 식자층들의 詩的 欲求를 자아내는 매개체로 작용하여 차생활이나 차의 정신 등, 다사를 통한 일상의 정서나 사상을 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의 역할은 다인들의 정신세계의 영역을 넓혀

14) 송경섭, 「茶詩에 나타난 朝鮮開國士大夫의 具顯世界 小考」, 『한국차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차학회, 2008.

15) 석용운, 『한국다예』, 초역, 2005, p103.

주었으며 사유의 활력소가 되었고 그들에게 문학적 창작 욕구를 가져다주어 茶詩의 의미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차의 본질을 파악하고 차의 세계에서 여유롭게 차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를 매개로 한 다인들의 정신세계를 읊은 작품까지 다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기존 논의의 경우, 다시의 범주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다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다시라고 하여 연구된 성과 중 실은 다시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다시를 다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김시습의 다시로 인정해 왔던 작품 하나를 예로 들어 이런 문제점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김미숙은 김시습의 다시를 권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和淵明飲酒詩> 二十首를 다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⁶⁾ 그러나 이 시는 술을 주제로 도연명의 飲酒詩에 화답하여 지은 시이다. 따라서 이 시들을 다시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숙이 다시로 분류한 것은 아마도 其十六에 나오는 다음 구절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永日撰詩史
燈下修茶經

긴긴 날엔 시사(詩史)를 편찬하구요
등불 밑에선 다경(茶經)을 닦아 갑니다.¹⁷⁾

이 시에서는 김시습의 일상을 시로 나타내는 가운데 차 관련 용어 “茶經”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경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시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다경을 닦아 간다는 것을 여러 일상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에는 “술만은 모든 근심 풀을 만하니, 사후의 이름일랑 돌보지 않네. 제가 붓고 제가 또 마셔버리며, 즐겁게 한 평생을 소일하누나. (酒可祛千慮 不顧身後名 自酌復自飲 逍遙歡平生)”¹⁸⁾라고 한 구절이나, “나는야 한 잔 술에

16) 김미숙, 『梅月堂 金時習의 茶道觀 研究-茶詩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30.

17) 『梅月堂集』, p.213. ; 『국역매월당집』 2권, p.21. 앞으로는 김시습 작품의 경우 두 책의 페이지만 순서대로 밝히기로 한다.

18) p.213. ; 2권, p.14~15.

취해 가지고, 임천(林泉)에 종적 감춘 것 알고 있다네. (我醉一杯酒 林泉知晦跡)¹⁹⁾에서와 같이 술을 예찬하고 술을 좋아하는 그의 마음이 시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구는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성도 띠지 않고 있으며, 시의 전개 상, 김시습의 일상을 시로 나타낸 詩句의 하나로 쓰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오히려 飲酒詩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와 관련된 사물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여 차 생활하는 자체를 읊고 있거나, 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정서를 읊은 시”를 다시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김시습 다시로 분류된 시들을 재검토한 결과 14제 16수만이 다시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김시습 다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1> 김시습 다시

시제	출전
獨坐逢人啜茶賦詩	卷之一, 述懷
習之山居, 4-1	卷之三, 隱逸
竹筧	卷之四, 泉石
地爐	卷之四, 器用
雀舌	卷之五, 茶
煮茶, 2-1, 2-2	卷之五, 茶
燈下	卷之七, 調詞
雷劍泉	卷之九, 遊關西錄
出長慶門外煮茗	卷之九, 遊關西錄
與根師話	卷之九, 遊關西錄
詠山中草木, 7-1	卷之九, 遊關西錄
養茶	卷之十二, 遊金鰲錄
和鍾陵山居詩, 24-2, 24-16	卷之十三, 關東日錄
謝人送胡椒茶具, 3-1	卷之十四, 溟州日錄

2) 다시의 형식과 茶語

19) p.213. ; 2권, p.21.

① 다시의 형식

김시습 다시를 형식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김시습 다시의 형식 분류

近 體 詩	絶 句	5언	煮茶
		7언	獨坐逢人啜茶賦詩
			習之山居
	律 詩	5언	地爐
			竹筧
			雷劍泉
		7언	與根師話
			謝人送胡椒茶具
			養茶
	排 律 詩	5언	和鍾陵山居詩
			出長慶門外煮茗
		7언	詠山中草木
	古體詩		雀舌
		燈下	

위의 형식을 살펴보면, 고체시는 한 개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근체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체시 중에서는 절구·율시·배율시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구에 비해 율시나 배율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구의 경우 5언보다 7언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시습이 차를 마시는 가운데 느끼는 詩情을 억제하지 않고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데는 單形보다 長形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시습 다시의 형식적 특징은 몇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불교적 관념을 내포한 이미지를 시로 형상화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연을 관조하고 선적 정취를 나타내는 시적 표현들은, 불교적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어 詩中有畫의 외형적 요소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불교적 통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獨坐逢人啜茶賦詩>에서 찾아볼 수 있다.

兩耳聊聊獨坐時	두 귀에 아무런 들림 없어 홀로 앉았을 때
半簾斜日映花枝	반림에 비긴 해가 꽃가지에 비치네 ²⁰⁾

이 시는 해질녘 오후 혼자 선정에 든 김시습의 모습을 비껴가는 해에 비추어, 산사의 영상적 이미지를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홀로 앉은 김시습과 비껴가는 햇살의 그림자가 산거의 쓸쓸한 고독감마저 느끼게 한다. 또한 <出長慶門外煮茗>에서도 그러한 시적 영상미를 찾아 볼 수 있다.

踏損紅錦地	붉은 비단 같은 땅을 밟아 해쳤네
日暮風起沙	날 저물자 바람이 모래에 이니
浪打箕子城	물결이 기자성을 때리는구나
花褪穠陰成	꽃은 지고 짙은 숲을 이루었구나
且煎金粟芽	계수나무 꽃잎으로 차나 달이리 ²¹⁾

위의 묘사들은 장경문에서 바라보는 정경에 마음을 담아 시적으로 그림을 그리 듯이 묘사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감흥과 풍취를 불교적 이미지로 바라보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 다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객관적인 물상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인 정물로 환치하는 묘사를 하고 있으며, 시각에 청각을 더하는 시공감각적 구성은 김시습 다시의 묘미라 할 수 있다. 그의 시<雷劍泉>에 표현된 부분을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夜聞聲似佩	밤에 듣는 소리는 佩玉 같은데
晨汲色如琨	새벽에 물 길으면 빛이 옥 같네 ²²⁾

20) p.099. ; 1권, p.89.

21) p.227. ; 2권, p.77.

22) p.222. ; 2권, p.57.

밤에 샘물이 고여 흐르는 소리와 맑은 물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묘사함으로써 맑게 흐르는 샘물에 대한 이미지를 시공감각적인 구성으로 이루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竹筧>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剝竹引寒泉	대 쪼개어 찬 샘물 끌어 놓았더니
琅琅終夜鳴	졸졸졸 밤새도록 울어대누나
細聲和夢咽	가는 소리 꿈과 섞여 목이 매이고
清韻入茶烹	맑은 운치 차 끓이는데 들어간다네 ²³⁾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꿈속에도 들려와 목이 매이고, 그 맑음이 차 속으로 들어가는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 이미지는 시적 영상을 한층 돋우어 준다.

雀舌

碧玉甌中活火烹	푸른 옥병 속에 넣어 타는 불로 달여낼 제
蟹眼初生松風鳴	게 눈 같은 거품 생기며 솔바람 울리네 ²⁴⁾

푸른 옥병에 차를 넣고 불로 달일 때 물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게 눈 같다고 표현하고 물이 끓는 소리는 솔바람이 부는 소리와 같다고 하여 시각에 청각적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차물이 끓는 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물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주관적인 이미지로 바꿈으로서 시적 묘미를 더하는 김시습의 시 감각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김시습 다시의 茶語

김시습의 다시에는 다양한 茶語들이 등장한다. 이는 다채로운 다어의 구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시습은 많은 다서를 통해 차에 대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다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은 도서의 유통과 구독이 어렵던 조선 초기에 陸羽의 『茶經』, 盧仝의 『茶歌』 등을 비롯하여 많은 다서를 읽었던 것으로

23) p.156. ; 1권, p.315.

24) p.167. ; 1권, p.359.

유추된다. 김시습은 자신의 시에 다채로운 다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까지 한다. 다음은 김시습의 다시에 나오는 다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3> 김시습 다시에 나타난 茶語

茶語	詩句	詩題
啜茶	獨坐逢人啜茶賦詩	獨坐逢人啜茶賦詩
龍茶餅 煮雪	道人手劈龍茶餅 煮雪清瀾注小樽	習之山居
茶烹	清韻入茶烹	竹筧
茶湯	客來時復煮茶湯	地爐
煮茶	松風輕拂煮茶煙 煮茶黃葉君知否	煮茶
茶林 紫筍 鳳餅龍團 蟹眼 雲腴 雪茶	茶林葉底含尖觜 紫筍抽出旗槍間 鳳餅龍團徒範形 蟹眼初生松風鳴 一啜雲腴雙眼明 那識雪茶如許清	雀舌
茶沸	茶沸玉甌鳴	與根師話
茗	家貧茗是醯	謝人送胡椒茶具
龍鳳餅	爐火試翦龍鳳餅	燈下-天仙子-
蒙頂茶 陸羽經	香辣勝蒙頂 不收陸羽經	詠山中草木
槍旗 穀雨	官家權處取槍旗 穀雨初回葉半披	養茶
金粟芽	且煎金粟芽	出長慶門外煮茗
茶竈 雀舌	茶竈菌生亦不嫌 雀舌香芽手漫煎	和鍾陵山居試

鳳餅·龍團은 김시습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옛날 중국 上品 茶의 이름이다. 이 차는 품질이 좋은 차를 갈아서 반죽하여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틀에 박아서

굳힌 것인데, 鳳과 龍의 무늬를 넣은 데서 나온 명칭이다. 둘을 통틀어 용봉차라 하는데 송의 인종 때에 많이 만들었다 한다. 『大觀茶論』에, “건계에서 올린 봉병과 용단은 유명하기 천하에 으뜸인데 짐작하건대 용이니 봉이니 하는 것은 茶餅 위에다 용과 봉의 무늬를 박았기 때문일 것이다.(建溪之貢 鳳餅龍團 名冠天下 按龍鳳者 餅上印以龍鳳文也)”라 하였다.²⁵⁾

雲腴는 차의 다른 이름이다. 운각(雲脚), 운화(雲華)라고도 하며 작설 같은 어린잎을 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당의 시인 피일휴(皮日休)의 시에 “운유처럼 맛있고 왕뇌처럼 둥글다(美似雲腴美 形如王腦圓)”라고 하였다.²⁶⁾ 또 황산곡이 소식에게 보낸 시 <雙井茶送子瞻>에도 “내 집이 있는 강남에서 운유차를 따다네(我家江南摘雲腴)”라는 구절이 보인다.²⁷⁾ 점필재의 시<和彦升>에도 “새로운 시 많이 얻으니 맛이 운유와 같네. (新詩贏得味雲腴)”와 같이 운유는 아주 맛이 뛰어난 고급차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²⁸⁾

蟹眼은 차가 끓을 때 일어나는 작은 거품이 게 눈과 같다는 뜻이다. 소식의 시에 “게 눈은 지나가고 고기 눈이 생기네(蟹眼已過魚眼生)”이라 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말한 것이다.²⁹⁾

陸羽는 당(唐)나라 경릉 사람으로 자는 홍점(鴻漸). 호는 상저옹(桑苧翁)이다. 천성이 차를 즐겨 『경(茶經)』 3편을 지었다. 자연복귀 운동을 제창하였으며 차를 즐겨하여 『茶經』을 지어 茶道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다.³⁰⁾

蒙頂은 중국 차의 이름이다. 사천성 몽산조(蒙山條)에 “몽산에서 나므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몽정차는 고려시대 이규보도 많이 마신 듯하다. 그의 고을 시 “술 마신 뒤 함께 몽정녹차를 맛보며, 포단에 둥글게 앉아 말마저 잊노라(飲罷共嘗蒙頂綠 蒲團槃坐禪忘言)”³¹⁾, “오직 향기로운 茶를 마시기 때문, 몽정의 새싹을 따서, 혜산의 물로 달인 것이 제일일세(唯是茗飲耳 好將蒙頂芽 煎却惠山水)”라고 하여 몽정차는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마셔왔음을 보이고 있다.³²⁾

25) 『국역매월당집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358.

26) 『국역매월당집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359.

27) 김명배, 『韓國의 茶詩 鑑賞』, 대광문화사, 2004, p78.

28) 김중직, 『估畢齋集』 卷之九, 詩.

29) 『국역매월당집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359.

30) 『국역매월당집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268.

31) 이규보,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九, 古律詩.

32) _____, 『東國李相國後集』 卷第一, 古律詩.

龍團餅은 상등의 중국 차, 또는 차의 떡 같은 덩어리를 말한다. 『천관(天觀)』 茶論에 말하기를, “本朝가 일어남에 해마다 建溪가 공물을 닦았는데, 龍團鳳餅으로 하였다. (本朝之興 歲修建溪之貢 龍團鳳餅)”이라 하고, 『석림언어』에서도 “건중에서 해마다 대용봉단차를 바쳤다. 인종 때에 채군 명이 차의 정한 것을 가려 소용단 1천근을 만들어 바쳤다.(建州歲貢大龍鳳團茶 人宗時 蔡君溟擇茶之精者 爲小龍團千斤以獻)”이라 하였다.³³⁾

金粟芽는 곡우 전에 따는 어린 차로 작설차를 말한다. ‘雀舌’은 곡우 전에 따는 차잎의 모양이 새의 부리와 같다고 하여 ‘작설’이라 불렀다. 茶詩 중 ‘작설’을 사용한 시는 원천석의 <謝弟李宣差師伯 惠茶>에 “가는 풀에 새로 봉한 작설차여라(細草新封雀舌茶)”라고 한 구절과,³⁴⁾ 정약용의 시 <春日棗泉雜詩>에 “백악곡의 새차가 싹이 처음 나왔는데 백악곡은 김단산 북쪽에 있는데 작설차가 난다.(鴉谷新茶詩展旗, 白鴉谷在黔丹山北, 產雀舌茶)”라고 다산의 시에 등장하나 작설이란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았던 것 같다.³⁵⁾

그 외에 김시습의 茶詩에는 풍부한 茶語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가 많은 다서를 섭렵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그의 茶詩에는 茶竈(茶竈菌生亦不嫌), 茗椀(茗椀宜自酌), 茶七椀(渴來茶七椀), 茶飯(尋常喫茶飯), 茶香(金선床下換茶香), 雪茶(爐煮雪茶詩), 茶煙(茶煙颺處鶴飛去), 石鼎·茗一鐘(石鼎烹殘茗一鍾), 黃金茶(冷氣逼我黃金茶), 茗一杯(拈却陶公茗一杯), 天女供茶(天女供茶香廚淨), 新茶(一味新茶滿玉甌), 茗煙(鶴避茗煙廻), 有茶(山低貢有茶), 팽죽명(擁爐烹粥茗) 등 차의 쓰임새나 다구의 모양, 차를 끓일 때나는 연기 등 차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였다. 龍茶餅, 蒙頂茶 등으로 보아 중국과의 교류로 鳳餅이나 龍團 같은 중국차도 많이 마신 것을 알 수 있다. 김시습 다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의 차생활을 보여주는 것들로, 다채로운 그의 다사를 짐작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차를 통한 일상생활의 중요성, 차에 대한 깊은 정신세계 등 그의 생활에서 차가 얼마나 깊숙이 스며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에 대한 애정과 식견은

33) 『국역매월당집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57.

34) 원천석, 『耘谷行錄』 卷之五, 詩.

35)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一卷, 詩.

어느 다인보다도 많은 시를 쓰게 하였으며 고담한 차의 정신세계 속에 들게 하는 힘이기도 하였다.

3) 다시의 내용적 특징

① 현실 超克의 의지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찬탈로 현실을 떠나 자연을 유람하면서, 그만의 차생활을 실천하였다. 그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시를 통하여 다양하게 피력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울분과 갈등으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고 새로운 정신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그의 노력은 자기 초탈의 의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현실과 사대부들, 사회적 이념의 괴리에서 오는 일련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였다. 현실을 떠나 속사에 대한 미련을 버린 김시습은 자신이 벼슬을 하고 있었다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내가 벼슬길에 있으면서 이 깨끗한 구경을 다 하려 하였다면 얻을 수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자유자재하게 놀이도 못했을 것이다.

아! 인생이 천지 사이에 생겨난 명리에 근심하고, 생업에 급급함으로써 그 몸을 고달프게 하기를 뱀새가 들완두를 그리워하고 박이 나무에 매달리듯 한다면 어찌 괴롭지 아니하라? 이에 지(志)를 지어 세속 선비들을 격려 한다.³⁶⁾

그는 벼슬길에 있었다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명리나 계층적 욕구에 집착하는 인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오히려 <恩津縣客舍 遇盧文學 因次其韻>에서 “옛 놀던 자취는 봄날의 구름과 같아,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잘못에 부끄럼을 느낀다오(舊遊蹤跡如春夢 得失多慙不出寰)”³⁷⁾라고 하여 자신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그

36) “若吾在宦途 欲窮茶清翫 不可得也 而又不能自在遊戲矣 嗚呼 人生天壤之間 戚戚於利名 營營於生業 以困其身 如鷓鴣之戀苕 匏瓜之繫樹 豈不苦哉 是爲志以激俗士” <宕遊關西錄後志>, p.237. ; 2권, p.126~128.

37) p.257. ; 2권, p.203~204.

러한 세속적인 명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호방한 심성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현실 초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다음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謝人送胡椒茶具 (3-2)

餐淡蔬爲鮮
 家貧茗是醜
 雖甘閑味好
 頗苦欠情多
 映案堆紅粒
 粘匙點白醜
 爲官有薄俸
 其奈役心何

음식이 싱거워 나물이 반찬되고
 집이 가난하니 차가 그대로 술일세.
 한가함 달게 여겨도 맛은 좋고
 꽤 쓴 게 흠이지만 정이 듬뿍 담겼네.
 소반에 비친 게 붉은 낱알 쌓이고
 숟갈에 붙는 건 흰 소금 점일세.
 벼슬하면 박해도 봉급이 있네만
 마음에 역사함을 어찌할 거나?³⁸⁾

김시습은 박한 봉급마저도 거부할 만큼 세속의 영욕을 멀리 하고 있다. 벼슬을 하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봉급이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한가한 가난을 선택한 것은, 세속적인 명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의 강한 초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신의 환경을 초극하려는 그의 의지는 명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속사이기를 거부하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기 초탈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그가 차를 끓이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煮茶 (2-2)

自怪生來厭俗塵
 入門題鳳已經春
 煮茶黃葉君知否
 却恐題詩洩隱淪

날 적부터 티끌 세상 싫은 걸 스스로 괴이쩍게 여겨
 입문(入門)하여 봉(鳳)자 쓴 게 벌써 청춘 다 지나갔네.
 차 끓이는 누런 잎새 그대는 아는가?
 시 쓰다 숨어 삶이 누설될까 두렵네.³⁹⁾

38) p.319. ; 2권, p.458~459.

39) p.167. ; 1권, p.359~360.

그는 천성으로 세속을 싫어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았지만, 자신을 받아줄 세상을 만나지 못한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아직은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속내도 비추고 있어, 봉사 쓴 청춘을 다 보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가 시를 쓰며 숨어사는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알려질까 염려하는 마음은, 현실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관조하며 살고자 하는 처연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루지 못한 현실적 삶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으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초극의 의지를 강하게 비추어, 世外에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구적인 해결책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삶은 당시 사대부들의 수평적인 同情의 모습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계층간의 신분을 보장 받기 위해, 풍류지향적인 다회를 열었다. 뜻이 같거나 결속하는 의미를 가진 사대부들의 다회는, 여럿이 모여 뜻을 확인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사회적 진출을 위한 문화의 소재로 삼았다. 이는 자기초탈의 수양을 목적으로 마시던 차가 친목을 위한 현실지향의 풍류적 성향을 띤 기호성 음다로 변화하면서 차문화는 목적을 잃고 그 본질이 훼손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사대부들은 경제적 안정과 권력을 보장 받기 위해, 차를 풍류적인 문화의 소재로 삼으면서, 차문화는 그 순수한 품성을 잃고 세속적 욕구가 담긴 기호적 성향으로 흘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대부들의 행동양식은, 유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수평적 현실지향의 명분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들의 차문화에는 계층 간의 욕망과 개인의 입신양명이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풍류지향적인 성향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김시습은 이러한 사대부들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和金文良韻>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世人蒿目又蓬心
盡說休官擬遠尋
虛計萬般終失實
鬢邊霜雪老侵尋

세상사람 근심하고 줌스러운 마음으로
모두 벼슬 그만 두고 먼 것을 찾는다고 말들 하지만
헛된 계교 만 가지나 마침내 실함을 잃게 되어
귀 밑에 눈서리가 늙음을 침노하여 찾아들리라⁴⁰⁾

40) p.235. ; 2권, p.115.

김시습은 부귀영화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힐책한다. 그들이 관직을 물러나면 진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는 것이다. 진정 뜻이 있다면 관직을 물러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손에 쥔 공명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천 없는 관념에 불과할 뿐, 구레나룻 희어 늙어지면 그 때는 육신이 병들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의 헛된 계교에 자탄을 보낸다. 결국 그들이 외치는 진리는 욕망에 사로잡힌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관념적 삶은 현실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명분추구에 대한 이원적 구도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의 관념적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시습의 차 문화에는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풍류적 성격의 음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육우의 『茶經』에 “茶의 성품은 검소하다(茶性儉)”고 하였고, “茶를 마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행실이 바르고 질박한 덕망을 갖춘 사람(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이라고 하였다.⁴¹⁾ 차의 본성을 이해한 김시습은 세욕을 떠나 自己超脫의 가치를 지향하는 구도적 수행 의지로 차를 마심으로써 수직적인 초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가난하지만 세욕에 물들지 않는 그의 차 생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차 부뚜막에 버섯이 필만큼 가난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은 가난도 삶의 낙으로 여기고 늙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塵世에 유유한 자들에 대한 소슬한 심정도 보여주고 있다.

和鍾陵山居詩 (24-5)

四美年年到處兼
溪光山色映蓬簾
藥園鹿戲何曾慍
茶竈菌生亦不嫌
萬事省來貧是樂

사미(四美)는 해마다 도처에 겸하는데
시내 빛과 산 빛이 쭉 밭에 비추네.
약 동산에 사슴 놀음 어찌 일찍 성을 내며
차 부뚜막 버섯 남도 역시 혐의 아니한다.
만사를 덜고 나니 가난함이 낙이요

41) 육우, 『茶經』, 五之煮, 一之源.

一身閑了老非厭
笑看塵世悠悠者
無太麁疏便太纖

한 몸이 한가하니 늙어 감도 싫지 않네.
웃으면서 진세에 유유한 자 보니
너무 거칠지 않다면 곧 너무도 가늘어라.42)

세간에서의 안락이 청복이라 생각하여, 출사의 뜻에 자신들의 계층적 욕구를 숨긴 사대부들의 이념이, 김시습에게는 부질없는 욕심에 불과하였다. 현실에 대한 좌절로 이상을 이루지 못한 그의 갈등은,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버리는 용기를 가져다주었고, 도리어 탈속한 생활에서 청빈한 안락을 추구하는 자기 정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고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사대부들의 풍류적 성격의 차문화와는 가치가 다른, 현실을 초극한 세계 안에서 정신적 위안을 얻는 그만의 차문화를 이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物我不二의 茶禪

김시습은 조계산의 송광사에서 峻上人에게 불법을 배운 이래 설잡이란 법호를 사용하며 산수를 유람하였다. 또한 효령대군의 추천으로 法華經 諺解事業에 참여하였고, 『十玄談要解』, 『大華嚴一乘法界圖註并序』, 『華嚴釋題』, 『妙法蓮華經別讚』, 『曹洞五位要解』 등 불서를 저술하여 불교사상을 깊이 받아들였다. 산수 자연을 유람하는 동안 각지의 고찰과 명승도량에 머물러 참선에 몰두하기도 하고 주관과 객관의 분별을 떠난 物我不二의 경지를 체득하기도 하였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산수를 유람하는 구도의 길을 떠난다.

出長慶門外煮茗

朝出長慶門
晚歸永明寺
緩步春江湄
踏損紅錦地
不省謾吟哦

아침에 장경문을 나아갔다가
늦게야 영명사로 돌아왔구나.
천천히 봄날 강가를 걸어서 가니
붉은 비단 같은 땅을 밟아 헤쳤네.
부질없이 시 읊느라 살피지 못해

42) p.299. ; 2권, p.373~380.

遠近亦不記
 興闌卽知還
 遊觀亦無次
 大同江水深
 鳧鴨相和鳴
 日暮風起沙
 浪打箕子城
 我行正春暮
 花褪禮陰成
 明朝向名山
 更向風月窩
 信美非吾土
 且煎金粟芽

원근도 제대로 기억 못하네.
 흥이 깊자 돌아옴을 즉시 아니
 유람도 역시 차례가 없네.
 대동강의 강물은 깊고 깊은데
 오리 떼는 서로 화답해 울고 있구나.
 날 저물자 바람이 모래에 이니
 물결이 기자성을 때리는구나.
 내 행차가 바로 늦은 봄철이라서
 꽃은 지고 짙은 숲을 이루었구나.
 내일 아침 명산으로 향하여 갔다가
 다시 또 경승지를 향해 가리라.
 진실로 아름다움 내 땅이 아니니
 계수나무 꽃잎으로 차나 달이리.⁴³⁾

늦게야 돌아오는 영명사 길에는 김시습의 마음만큼이나 수심 깊은 대동강이 흐르고 있다. 부는 바람에 물결이 일어 성을 때리는데 내일 또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심정을 차를 달이며 풀어 본다. 대동강은 일찍이 정지상이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보태어 언제나 마르지 않고 깊이깊이 흐르는 강(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⁴⁴⁾이란 시를 지어 세인의 입에 오른 강이다. 그 강을 바라보며 봄날을 즐기는 시를 읊어 보기도 한다. 김시습이 유람을 한 것은 기세를 양성하거나 글을 쓰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명리를 추구하는 속세를 떠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만약 그가 벼슬을 하고 있었다면 명리를 탐하고 세속에 끄달려 살았을 텐데, 그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고독한 유람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였다. 내일 또 명승지를 찾아 떠나기 전, 차 한 잔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和鍾陵山居詩 (24-18)

雀舌香芽手漫煎

작설(雀舌)⁴⁵⁾의 향그러운 싹 손수 달이니

43) p.227. ; 2권, p.76~77.

44) 정지상, 『破閑集』 卷下, <送友人>.

此間滋味頗陶然
誰爲四海棲棲者
我已平生蕩蕩焉
道學只從心上得
天機肯向語中傳
顏瓢點瑟無人會
自有風流滿眼前

그 사이에 재미가 도연하여라.
누구라 사해 위해 바빠 할 사람이라?
나는야 평생에 무질서한 사람이라.
도학(道學)은 마음 위를 따라야만 얻으리니
하늘 기쁨 즐겨 말속 향하여 전하랴?
안표(顏瓢)⁴⁶⁾와 점슬(點瑟)⁴⁷⁾을 아는 이 없지만
스스로 풍류 있어 눈 앞에 가득하네.⁴⁸⁾

작설의 향기로운 차를 달이며 평생 동안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살았지만 도를 배우는 것은 마음 보다 수승한 것인데 하늘의 뜻을 무엇하러 전하겠는가. 안표와 점슬의 고사를 아는 이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느끼는 풍류에 자족하고픈 마음 가득하다. 작설차 한 잔을 우려내 다선 삼매를 즐기는 정서를 시화한 그의 모습에서 物我不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김시습의 구도적 행각은 세속에 쌓인 번뇌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위안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 방편에서 기인한다.

獨坐逢人啜茶賦詩

兩耳聊聊獨坐時
半簾斜日映花枝
年來漸覺無拘束
滿肚幽懷卽是詩

두 귀에 아무런 들림 없어 홀로 앉았을 때에
반림(半簾)에 비긴 해가 꽃가지에 비치네.
연래에 점점 구속 업음을 깨달아
뱃속 가득한 깊은 회포 그것이 곧 시가 된다.⁴⁹⁾

45) 작설(雀舌) : 백제(百濟) 때에 중국에서 차(茶)씨를 들여와 지리산 남쪽에 심어서 그 잎으로 차를 만들었으니, 그 이름을 작설이라 하였다.

46) 안표(顏瓢) : 안자(顏子)가 가난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논어』 옹야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어질도다, 안회여, 한 도시락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항에 있음을 남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어질도다 회여!” 한 데서 유래했다.

47) 점슬(點瑟) : 증점(曾點)의 거문고를 말한다. 『논어』 선진편에 “점아! 너는 어떠한가?” 하니 거문고를 타다가 쟁하고 놓고 일어나 말했다.”고 하였다. 그가 한 말은 천지의 화육과 그 공을 한 가지로 한 곳에 귀착하였으므로 공자가 칭찬했다 한다.

48) p.299. ; 2권, p.373~380.

49) p.099. ; 1권, p.89.

시공과 육체를 초월한 삼매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선방에 홀로 앉아 좌선을 하는 일상은 어느 것에도 구속됨이 없고, 마음 깊이 우러나는 회포는 그대로 시가 된다. 삼매에 들었다가 차 한 잔 마시며 시를 짓는 김시습의 모습은 다인들이라면 한 번 짚은 꿈꾸어 보는 정경이다.

참선을 끝내고 마시는 차 한 잔은 그야말로 신묘한 기운이 담긴 차의性情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차는 홀로 마실 때 가장 신비롭다고 하였다. 더욱이 좌선을 끝낸 뒤이니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심신이 평정되고 고결해져 장신이 가장 수승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때 작설 한 잔 우려내어 마시는 차의 아취는 茶三昧의 적요함이다.

與根師話

十笏禪房靜
根師道眼明
香銷銅篆冷
茶沸玉甌鳴
軟語移時坐
靑山不世情
此峯五欲隱
重與話平生

열자 되는 선방은 고요하기만 한데
근사(根師)의 도안(道眼)은 밝기도 하네.
향이 사그라지니 동에 세긴 전자가 차고
차 끓이니 옥사발이 더욱 울어대네.
부드러운 말 잠시나마 앉아서 하니
청산은 보기 드문 정이 있구나.
이 산속에 내가 숨어서
평생토록 그대와 자주 얘기하고자 하오.⁵⁰⁾

김시습은 열자 되는 고요한 선방에서 머무는 바 없는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근사의 도안은 삶을 밝게 비춰주고 주관적인 禪心, 茶心은 자연에 담아 하나를 이룬다. 차와 선이 하나인 경지에서 해안이 밝은 선사와 범담을 나누니 선사와 평생토록 은거하고픈 마음이 생겨났다. 옥사발에 차를 끓여 禪交를 나누고 집착과 욕망을 벗어던진 幽閒한 茶情은 둘의 만남이 지속되길 염원하고 있다.

김시습의 한유하고 소박한 선의 경계는 홀로 산거에 앉아서도 이어지고 있다.

50) p.231. ; 2권, p.97.

燈下

山室無人春夜永
 銷盡蘭膏花吐影
 銀屏紙帳自無風
 心地惺人初靜
 紅艷蕩來還耿耿
 睡覺漏聲全未省
 月在西峯星斗冷
 整衣撞却四更鍾
 沈短綆汲寒井
 爐火試翦龍鳳餅

산 집에 사람 없어 봄 밤도 길고 긴데
 난고(蘭膏) 모두 사라지자 꽃그림자 토하네.
 은빛 병풍 종이 휘장 스스로 바람 없어
 마음이 성성하니 사람 처음 고요하네.
 홍염(紅艷)을 잘라 내니 도리어 경경(耿耿)한데
 잠 깨어도 누각(漏刻) 소리 전혀 알지 못하였네.
 저 달이 서산에 가 별빛이 차가운데
 옷 여미고 사경중(四更鍾)을 쳐서 울려대네.
 줄 짧은 두레박으로 찬 우물물 길어 놓고
 화로불에 시험 삼아 용봉병(龍鳳餅)을 달여 보세⁵¹⁾

사람도 없고 향유도 사라진 밤, 마음이 성성하여 본원에 이르니 바깥 경계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산 위의 달은 별빛마저 차갑게 하고 용봉병을 달이는 물아불이의 경지는 맑고 맑은 초극의 자아를 이루고 있다. 이념의 수평적 현실 지향의 세계를 벗어나 자신을 극복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초극의 체화는 김시습이 찾고자 하던 구도의 悅樂이었다.

習之山居 (4-4)

紙帳蒲團土垞溫
 南窓紅日暖梅魂
 道人手劈龍茶餅
 煮雪清瀾注小樽

종이 휘장 창포 방석 흙 구들이 따듯한데
 남쪽 창 붉은 해에 매화의 넋이 따듯해라.
 도인 손수 용차(龍茶)⁵²⁾ 내어 덩어리를 쪼개더니
 눈 녹은 맑은 물에 달여 작은 단지에 붓네.⁵³⁾

산거의 남쪽 붉은 매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 녹은 물에 용차를 달이는 맑은 경계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世外의 산속에 칩거하며 차

51) p.209. ; 1권, p.536~537.

52) 용차(龍茶): 상등 차의 이름.

53) p.138. ; 1권, p.250.

를 달이는 일상에는 세속의 영욕도 번민도 없다. 종이 휘장 날리는 따뜻한 방에 앉아 매화를 감상하고 차를 마시는 한적한 음다는 현실을 초극하고 자신을 찾는 길이다. 잊고픈 현실 속에서 차를 달이는 처연한 의지는 또 다른 삶으로의 전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인들에게 있어 차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삶의 바탕이고 중심이었다. 일상생활 속에 차의 가치를 녹이는 차문화는 茶의 本質 안에서 실천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시습의 飲茶가 본원적인 깨달음을 향한 求道的 수행의 길 위에서 物我不二의 茶禪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③ 茶農茶事

조선전기 사대부들은 차를 수양의 방편으로 삼아 茶禪 수행을 하였다. 다선 수행은 선가의 경제관인 農禪并重에서 살펴볼 수 있다.⁵⁴⁾ 대규모 사찰에서는 茶僧을 두어 차를 재배하고 차를 만드는 생산과 관리의 책임을 전문적으로 하였고, 선가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과 선을 닦는 것을 一如로 보아, 다선의 시초로 삼았다.

다농병선은 약 8세기 중엽에 마조도일 선사가 제일 먼저 강서성에서 “농선결합”의 생활방식을 제창하였으며 제자에게 자급할 것을 격려했다. 그 후 그의 제자 백장회해 선사는 강서성 봉신현 百丈山에서 『百丈淸規』를 만들어 세속에서의 생산방식을 불가에 적용했다. 이러한 법규는 우리나라의 불가에서도 행해졌는데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이라 하여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는 『백장청규』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시하여 선수행 중 行禪의 일환으로 농사를 지었고, 다선을 위해 다농을 짓고 차를 만들었다. 백장은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매일 밭일을 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은 어느 날 호미와 삽을 감춰 버렸는데 그날부터 백장은 밥을 끓여 버렸다. 제자들이 백장에게 이유를 물으니 백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 내 오늘 일을 하지 않았으니 무슨 낫짝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숨겼던 호미와 삽을 내주었

54) 석지현 외 공저, 『茶禪一味』, 茶의 세계, 2005, p.93.

다. 이렇게 백장선사의 문하는 농선, 다선의 가풍을 엄격하게 유지하여, 선은 노동으로 더욱 생동력을 갖게 되었고 더욱 능률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약 9세기 중엽, 실제로 사원 내에서 선림경제가 보편적인 발전을 가져왔기에 차를 제조하는 자립적인 경제를 꾸려나가는 방식이 대규모로 흥성하였다. 거기에 위의를 갖는 사원의 음차풍습은 지속적인 차 생산 활동을 촉진시켰다.

선가의 이러한 농선의 영향을 받은 김시습은 경주 용장사에 거처하면서 작은 동산을 개간하여 차나무를 심고 당나라 陸羽의 『茶經』을 읽으며 차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다. 이는 그의 시 <詠山中草木>에 “육우의 『茶經』에다 신지 않았다면 (不收陸羽經)”⁵⁵⁾이란 대목이 있어 이를 알 수가 있다. 또 그는 <和淵明飲酒詩>에 “긴긴 날엔 시사를 편찬하고 등불 밑에선 茶經을 수련하네 (永日撰詩史, 燈下修茶經)”⁵⁶⁾라고 적고 있어 『茶經』을 보며 차를 재배하고 가꾸는 데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茶經』에는 차의 산지나 차가 자라기 좋은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차는 야생차가 상품이며, 재배한 차밭에서 따는 것은 차상이다. 양지바른 언덕의 그늘진 곳에서 나는 자줏빛 차가 상품이며 초록빛 나는 차가 차등품이다.⁵⁷⁾

이러한 차의 재배조건을 알고 있는 김시습은 <養茶>에 차를 재배하고 농사 짓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年年茶樹長新枝	해마다 차 나무에 새 가지가 자라네
蔭養編籬謹護持	그늘에 키우노라 울을 엮어 보호하네.
陸羽經中論色味	육우(陸羽) ⁵⁸⁾ 의 다경(茶經) 속엔 빛과 맛을 논했는데
官家權處取槍旗	관가에서 도거리할 적엔 창기(槍旗)만을 취한다네.
春風未展芽先抽	봄 바람이 아직 불지 않아도 싹이 먼저 터나오고
穀雨初回葉半披	곡우 때가 돌아오면 잎이 반쯤 피어나네.

55) p.232. ; 2권, p.97~99.

56) p.213. ; 2권, p.13~24.

57) 육우, 『茶經』, 一之源.

58) 육우(陸羽) : 당대(唐代)의 문인. 자연복귀 운동을 제창하였으며 차를 즐겨하여 『다경』을 지어 다도(茶道)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好向小園閑暖地
不妨因雨着瓊蕤

작은 동산 한난(寒暖)한 곳을 좋아해 뻗어나가면
비 때문에 옥 같은 꽃 드리워도 무방하리.⁵⁹⁾

茶나무를 재배할 때에는 많은 정성을 들인다. 차를 그늘에 키우는 차광재배는 茶나무의 특성인 耐陰性이 강한 성질을 이용하는 재배법이다.⁶⁰⁾ 茶나무는 해를 가려서 키우면 잎의 두께가 얇아지고, 부드러워져 감칠맛이 우러나게 되어 맛의 풍미를 더해 주기 때문이다. 육우의 『茶經』에는 색과 맛을 중요시 했는데, 관가에서는 곡우 전에 차잎이 나오는 초엽만을 고집하여 茶稅를 물렸다고 한탄하였다. 김종직은 “좁쌀 같은 茶 싹을 따니 백성들의 괴로움이 크다”고 걱정하여 당시에 조선 초 관청의 무거운 다세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었다.⁶¹⁾ 김시습은 차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지는 그의 차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茶나무는 작은 동산 한난한 곳을 좋아하는데 김시습이 그러한 차의 성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차의 성품에 맞게 차를 재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시습은 차만을 재배한 것이 아니라 밭을 만들고 각종 약초⁶²⁾를 심어 가꾸었고, 채소도 재배⁶³⁾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으며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산중의 초목에 대한 애정을 읊으며 때론 차보다 낫다고도 하고 있다.

詠山中草木 (7-3)

地椒生峯危
香辣勝蒙頂
挹之碧澗月

지초(地椒)는 봉우리의 위대한 데서 자라도
향날(香辣)함이 몽정차(蒙頂茶)보다 낫네.
달이 잠긴 푸른 시냇물을 떠다가

59) p.274. ; 2권, p.267~268.

60) 이는 데아닌을 증가시켜 高級茶를 생산할 때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선전기에도 이러한 재배법이 있었고 이는 일본의 차 재배법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 방식이었다.

정영선, 「우리나라의 다인들10-김시습」, 『설록』, 1994, 07호.

61)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마위, 1990, p.175.

62) “동쪽 담 아래 작은 밭을 만들고 풀 칠팔 포기를 심다 (東牆下作小圃種草七八叢)”, 풀 칠팔 포기는 산약초를 말한다. p.177. ; 1권, p.405.

63) “4월이라 순 무를 밭에 심으니, 푸른 이끼 빠르게도 더부룩하오 (四月種蔓菁, 土花輕鬢)” <種蔬>, p.181. ; 1권, p.422.

煎此青石鼎
 軟語方外人
 活火明炯炯
 不收陸羽經
 不入官家茗
 端坐上方窓
 激我春睡醒

이것을 푸른 돌솥에 끓이리.
 상냥한 말 하는 이는 방외(方外)의 사람
 타는 불은 밝기가 경경하구나.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에다 신지 않았다면
 관가의 차축에도 들지 못했네.
 상방(上方)의 창을 향해 곧게 앉아서
 나의 봄잠 깨어남을 격려하누나.⁶⁴⁾

또한 그는 모옥 주위에 매화나무, 대나무 등 수십 가지 종류의 화초 “深黃菊, 梅花, 牡丹, 海棠花” 등도 가꾸어 농사짓는 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⁶⁵⁾

김시습은 직접 재배한 차밭에서 곡우 전에 차를 따서 작설차를 만들었다. 그는 차를 따서 만드는 과정을 아주 신령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 차를 만들었다.

雀舌

南國春風軟欲起
 茶林葉底含尖嘴
 揀出嫩芽極通靈
 味品曾收鴻漸經
 紫筍抽出旗槍間
 鳳餅龍團徒範形
 碧玉甌中活火烹
 蟹眼初生松風鳴

남국의 봄바람 부드럽게 일러는데
 차 숲 잎새 밑에 뾰족한 부리 머금었네.
 연한 싹을 가려내면 아주 신령스레 통하는 것
 그 맛과 품류는 옛 홍점(鴻漸)⁶⁶⁾의 『다경(茶經)』에
 수록됐네.
 붉은 싹은 잎과 줄기 그 사이에서 뽑아낸 것
 봉병(鳳餅)·용단(龍團)차 이름은 그냥 모양을 본뜬 걸세.
 푸른 옥병 속에 넣어 타는 불로 달여 낼 제
 게 눈 같은 거품 생기며 솔바람 울리네.

64) p.232. ; 2권, p.98~99.

65) “곧은 절개 지조를 마음에 아껴, 작은 오지 화분에다 심어 놓았더니 (爲憐貞節操, 種得小瓦盆)”, “낭간 푸른 대를 진흙 섞어 심었다가, 사기분에 옮겨 심고 석가산에 기대 두었네 (和泥種得碧琅玕, 移培瓷盆靠假山)”, p.178. ; 1권, p.410~415.

김상현, 『한국의 茶詩』, 민족사, 2003, p83.

66) 홍점(鴻漸) : 당나라 육우의 자. 호는 상저옹 또는 경릉자인데, 태자문학을 지냈다. 『당서』 196권에 “성질이 차를 좋아하여 『茶經』 3편을 지었으며, 차를 파는 사람들이 그를 제사하여 茶神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山堂夜靜客圍坐
一啜雲腴雙眼明
黨家淺斟彼粗人
那識雪茶如許清

산당(山堂) 고요한 밤에 손들 빙 둘러 앉아
운유(雲腴)차 한 번 마시면 두 눈이 밝아지네.
당(黨)의 집서 조금 맛보니 저인 촌 사람인가!
어찌 알리, 설다(雪茶)가 것처럼 맑은 것을.67)

작설은 찻잎이 새의 부리를 닮았다 하여 작설이라 부른다. 이 시에는 雀舌茶 잎의 모양과 따는 시기, 채다 방법, 茶 달이는 법, 차의 효능, 茶의 품격까지 雀舌茶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다. 茶를 따는 시기는 남국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이는 곡우 전, 1창 2기의 아주 어린 싹을 따다. 어린 싹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아 그 맛과 품격이 매우 우수하다고 육우의 『茶經』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작설차의 따는 시기와 모양, 그리고 차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개 차를 따는 일은 2월, 3월, 4월 사이에 있다. 차의 순은 문드러진 자갈이 섞인 비옥한 땅에서 나며, 길이는 너댓치로서 고비나 고사리가 처음 돌아난 것 같은데, 이슬을 무릎 쓰고 따다. 차의 싹은 찻잎 떨기의 얇은 것 위에 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송곳 끝처럼 쭉 뻗어난 가지만 골라서 따다. 차를 따는 날에 비가 오면 따지 않으며, 날씨가 개어도 구름이 끼어 있으면 따지 않는다. 맑게 개인 날에 따고, 찌고, 찢고, 치고, 꿰고, 봉하면 차는 마르는 것이다. 완성된 차에는 천 가지의 종류와 만 가지의 모양이 있다. 그 대강을 말하자면, 마치 오랑캐의 가죽처럼 주름이 지고 오그라든 것도 있다. ……혹이 달린 들소의 가슴팍처럼 모가 나고 반듯한 것도 있다. 그리고 뜯 구름이 산에서 나올 때처럼 꾸불꾸불한 것도 있으며, 가벼운 바람이 수면을 스쳐 갈 때처럼 잔 물결을 치는 모양을 한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가에서 도자기 만드는 흙을 걸러서 물로 맑게 한 듯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대나무 껍질 같은 것도 있다. 이것은 가지와 줄기가 굳세고 단단하여 찌기도 찢기도 어려워서 그 모양이 대나무 체와 같다. 그런가 하면 서리 맞은 연잎 같은 것도 있는데, 때를 넘긴 차란 줄기나 잎이 시들어서 생기가 없고 보통 차와는 모양이 바뀌므로 그 제품의 모양이 초라하다. 이런 것은 모두 차가 수척하고 늙은 것이다.68)

김시습의 <煮茶>는 차를 끓이는 실천적인 차생활의 모습을 시로 창작한 것

67) 『梅月堂詩集』 卷之五, 茶. p.167. ; 1권, p.358~359.

68) 육우, 『茶經』, 三之造.

이다.

煮茶 (2-1)

松風輕拂煮茶煙
裊裊斜橫落澗邊
月上東窓猶未睡
挈瓶歸去汲寒泉

솔바람 솔솔 불어 차 끓이는 연기 몰아
하늘하늘 가로 풍겨 시냇가에 떨어지네.
동창에 달 떠올라도 잠 아직 못 이루고
병 들고 돌아가서 찬 샘에 물 길네.⁶⁹⁾

그는 차를 끓이는 동안 변화하는 다사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茶 끓는 연기가 하늘가로 올라가 다시 시냇물에 떨어지면 달 아래 병들고 물 길어오는 운치는, 다인만이 느낄 수 있는 청량함이다.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떠오는 다사의 妙理는 시적인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봉병과 용봉을 만드는 작설은 푸른 옥병에 게눈 같은 물방울이 맺힐 때까지 끓이면 솔바람 소리가 난다. 『茶經』에는 찻물의 끓는 소리와 물방울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물이 끓는 것은 고기 눈과 같은 물방울이 생기고 어슴푸레한 물 끓는 소리가 나는 무렵을 첫째 끓음이라고 한다. 술의 가장자리에 솟아 오른 샘물처럼 구슬이 이어진 것 같이 물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둘째 끓음이라고 한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북 치는 소리가 나는 것을 셋째 끓음이라고 한다. 그 이상 끓으면 물이 쇠잔하여 마실 수가 없다.⁷⁰⁾

고요한 산당에서 손님들과 병 둘러 앉아 찻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雀舌茶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돈다. 운유는 구름에 가려서 자란 싹으로 만든 부드러운 차를 말하는데, 이는 김시습이 해가림으로 차를 재배하여 탄 고급차이다. 그는 해를 가려 차를 재배하는 이치도 알고 있어, 차의 현묘한 기운을 살리는 차를 범제하고 마셨던 것 같다.

다음은 그가 다사에 사용한 화로의 용도를 시로 표현한 내용이다. 이 시에서

69) p.167. ; 1권, p.359~360.

70) 옥유, 『茶經』, 五之煮.

화로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그의 차 생활이 보인다.

地爐

山房清悄夜何長	산방(山房)은 맑고 쓸쓸한데 밤은 어이 긴가?
閑剔燈花臥土床	한가로이 등불 돋우며 흙마루에 누워 있네.
賴有地爐偏饒我	의지하는 건 땅 화로라 편벽되이 나를 돕고
客來時復煮茶湯	손님 올 땐 다시금 차도 설설 끓인다네. ⁷¹⁾

등불을 켜고 흙마루에 누워 있다가 땅 화로에 불을 지피고 차를 끓이는 다사는 그의 소박하고 청빈한 일상을 말한다. “푸른 산 깊은 곳에 암자 한 채 엮어 (碧山深處結茅菴)”⁷²⁾에서처럼 뗏목로 엮은 초라한 암자에서 손님이 오면 지로에 찻물을 끓여 작설차 [雲腹] 를 마주하고 나누는 한담은 꾸밈이 없는 청빈한 삶이다. 잠 안 오는 밤과 맑고 쓸쓸한 날, 언제나 지로에 차를 끓여 마시는 생활이야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데워주는 벗, 그 자체였다.

차는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 차의 四奇(色, 香, 氣, 味)가 달리 나타난다. 좋은 물은 차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운 빛깔, 향기, 기운, 맛을 내는데 아주 절대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다인들은 맑고 깨끗하며 담박한 물을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다. 차는 양기보다는 음기의 속성을 지닌 식물이기 때문에 가급적 높은 곳의 누런 돌 사이를 흐르는 그늘진 곳의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竹筧

剗竹引寒泉	대 쪼개어 찬 샘물 끌어 놓았더니
琅琅終夜鳴	줄줄줄 밤새도록 울어대누나!
轉來深澗澗	돌아서 오니 깊은 시냇물이 말랐고
分出小槽平	나누어 내도 적은 구유 평평하다네.
細聲和夢咽	가는 소리 꿈과 섞여 목이 메이고
清韻入茶烹	맑은 운치 차 끓이는 데 들어간다네.

71) p.165. ; 1권, p.351.

72) <送尋隱上人歸故山詩卷>, p.134. ; 1권, p.229.

不費垂寒綆
銀床百尺牽

찬 두레막 내리는 힘 허비하지 않고
은상(銀床)을 백 척이나 끌 수 있다네.⁷³⁾

雷劍泉

清泉流湛湛
雷劍擊雲根
不許電繩混
長留桂兔痕
夜聞聲似佩
晨汲色如珉
試煮龍團餅
嘗來可解煩

맑은 샘 흐르기를 담담도 하니
뇌검천(雷劍擊)이 구름 뿌릴 쪼개고 솟네.
맹꽁이 떼가 섞임을 허용치 않고
계수나무 옥토끼는 오래 머무네.
밤에 듣는 소리는 패옥(佩玉) 같은데
새벽에 물 길으면 빛이 옥같네.
시험삼아 용단병(龍團餅)을 끓여 보노니
맛을 보고 번뇌 풀 만하네.⁷⁴⁾

우통은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구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水閣으로 연결하는 물 대롱이다. 우통의 물은 기운이 맑고 차서 찻물로는 아주 적합하다. 수각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그대로 차에 들어가 차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그의 시 <煮茶>에서도 “동창에 달이 떠올라도 잠을 못 이루고, 병들고 가서 찬 샘물 길어 온다 (月上東窓猶未睡 挈瓶歸去汲寒泉)”⁷⁵⁾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김시습은 찻물을 얻기 위해 상당한 정성을 들인 듯하다. 차 끓이는 물을 얻기 위해 새벽에 물을 길는 것은 물의 품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거니와 차를 즐기는 운치 중의 하나이다. 물에는 등급이 있어서, 좋은 물을 얻는 것은 차의 맛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茶神傳>에서 기록하고 있다.⁷⁶⁾ 또한 천지의 기운이

73) p.156. ; 1권, p.315.

74) p.222. ; 2권, p.57.

75) p.167. ; 1권, p.359.

76)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체이니, 진수가 아니면 그 신이 나타나지 않고, 정수가 아니면, 그 체를 엿볼 수가 없다. 산정천은 맑으며 가볍고, 수하천은 맑으며 무겁고, 석중천은 맑으며 달보드레하고, 사중천은 맑으며 차갑고, 토중천은 담박하다.(茶者 水之神 水者 茶之體 非眞水 莫顯基神 非精茶 莫窺基體 山頂泉 清而輕 水下泉 清而重 石中泉 清而冽 土中泉 淡而白).”

통광, 『초의 다선집』, 불광출판부, 1996, p.73.

응결되어 좋은 탕관으로 끓인 물을 秀碧湯이라고 하여 으뜸으로 여겼고, 여러 번 끓여 물의 본성을 잃은 물을 百壽湯이라 하여 차물로 적절하지 못함을 일컫는다. 이행은 우리나라 물맛을 등급에 따라 충주 달천수를 제1로 삼고, 금강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우중수를 제2로 삼고, 속리산 삼타수를 제3으로 삼았다.⁷⁷⁾ 맑은 물로 차를 달이는 것은 차의 본 성품을 살리는 것이니 그 만큼 차에 있어 물은 아주 중요하다.

김시습은 맑은 우통의 물을 떠다가 차물을 끓여 부처님께 禮를 올리는 선사를 보고 그의 정성을 시로 나타냈다. <五臺山> 에는 그러한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西巘高峯甚孤絶
于筒水潭氣清冽
上人携瓶自煎茶
禮拜西方極樂佛

서산의 높은 봉우리 외롭게도 끊겼는데
우통(于筒)의 못물은 기운이 맑고 차내
상인(上人)⁷⁸⁾은 병 가지고 손수 차를 달이고
서방의 극락세계 부처님께 예배하네⁷⁹⁾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獻茶儀禮는 불가에서 차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의식이었고, 왕실의 제사에 차를 올리는 霽儀作法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茶禮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다례의 양상은 부처나 신명에게 차를 올리는 奉獻茶禮, 별세한 승려나 대중의 영혼을 위한 祭祀茶禮, 혼자 마시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日常茶禮, 사찰 행사시에 마시는 集會茶禮가 있었다.⁸⁰⁾ 불가에서는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것을 茶偈라고 하여 계송으로 읊었다. 茶偈란 차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로서 禮佛 또는 佛供을 할 때 읊는 불교시다.⁸¹⁾

77) “이공이 오니, 상곡이 공도공을 시켜 창밖에서 차를 달이게 했다. 마침 차물이 새어서 다른 물을 부었더니, 이공이 맛을 보고 “이 차에 네가 두 가지 생수를 부었구나.” 하였다. 공은 물맛을 분간할 수 있는데 충주 달천 물을 제1로 삼고, 금강산에서 한강 가운데로 흐르는 우중수를 제2로 삼고, 속리산 삼타수를 제3으로 삼았다.(公嘗到堂 桑谷令恭度公烹茶於牕外 茶水溢 更添他水 公嘗之曰 此茶必添二生水 公能辨水味 以忠州達川水爲第一 漢江中之牛重水爲第二 俗離山之三陀水爲第三 達川蓋自金剛山出來者也)”, 『騎牛先生文集』, 卷之二, 附錄, 遺事摭錄.

78) 상인(上人) : 덕이 높은 중.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에 “一心行阿多羅三藐三菩提 心不散亂 是名上人”이라 하였다.

79) p.155. ; 1권, p.312.

80) 정영선, 『다도철학』, 너럭바위, 1996, pp.178~195.

81)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1992, pp.198~201.

上壇 茶偈

我今清淨水	제가 이제 청정수를 올리나니
變爲甘露茶	감로차로 변하여
奉獻三寶前	삼보님 전에 봉헌되어지이다.
願垂哀納受	간절히 원하오니 받아들여 주소서
願垂哀納受	간절히 원하오니 받아들여 주소서
願垂慈悲哀納受	간절히 원하오니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⁸²⁾

불가에서 올리는 청정수는 차를 올리는 이의 간절한 기원을 담아 불전에 올려 진다. 차를 올리는 정성은 감로수로 변하여 부처를 감동시킨다.

위의 상단 다게는 주로 대웅전에서 새벽예불을 봉행할 때 禮佛文 맨 처음에 스님이 낭송한다. 다게의 시원은 여말선초 승려의 제사를 지내면서 차를 바칠 때 읊던 垂語에서 찾을 수 있다. 돌아가신 스승에게 간단한 제사를 지내면서 영혼을 맞는 의식이나 축문을 겸하여 계송을 읊었다.⁸³⁾ 이후 불가에서는 사대 부들과 함께 차의 덕성을 꾸준히 이어와 차는 한국다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가에서 가까이 한 차의 덕성은, 차가 의식을 맑게 하고 잠을 쫓아 주며 사된 욕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⁸⁴⁾ 또 차는 고적한 산사의 선사들이 수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호품으로서의 기능을 한 때문이기도 하

82) 다게는 추담 정행(秋淡井幸)스님이 1869년(고종 6) 의례문(儀禮文)을 수집하여 1882년(고종 19)해인사 도솔암에서 간행한 목판본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박세민,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3집, p.530)dp 수록된 <소예참>의 다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석문의범』과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전4집을 모두 열람해 본 결과 이 다게는 대웅전에서 행하는 <향수해례(香水海禮)>, <소예참례(小禮儀禮)>, <7처9회례(七處九會禮)>, <강원상강례(講院上講禮)>의 서두 다게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 불교의 상단 예경시 오랫동안 전해오는 고유의 전통의식이다. 안진호, 『석문의범』 상권, 법륜사, 1970, p.1. 임혜봉편저, 『한국의 불교다시』, 민족사, 2005, p17.

83) 『석문의범』 卷下 “조주의 맑은 차를 혼령에게 올려 충정의 한 조각 마음을 냅니다. 드시고는 삼계가 꿈임을 깨달으시고 안심하며 곧장 부처님의 나라로 가소서.(趙州淸茶進靈座, 聯表沖淸一片心, 府飲覺知三界夢, 安心直到法王城)”
배규범, 「草衣意恂의 茶詩 연구 - 茶禪一如의 시문학적 해명-」, 『온지논총』 제14집, 온지학회, 2006. p262. 재인용.

84) 신농이 지은 『식경』에는 “차탕을 마시면 술이 깨고,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다. 차를 마시는 일련의 과정은 마음상태가 고요해지고 無心無我에 드는 참선과 동질성을 갖는다.⁸⁵⁾ 차를 재배하고 法製하여 차를 내게 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정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하게 되는 정신적 힘은 속세의 망상을 떨쳐버리게 하고 자아의 집착을 털어주어 無心自空에 이르게 하는 物我不二의 경계이다. 차를 마시는 다사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깊은 사유로 발전하여 좌선에 든 것과 같다. 좌선에 든 선정은 걸림 없는 경계에 머무르고 대상을 여의어 無碍自在한 마음이 된다. 이러한 걸림 없는 마음은 차와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한다.

김시습은 차를 통한 일련의 차생활 속에서 차의 성품과 정신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차의 가치를 체화하였다. 차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격을 달리 한다. 차를 알고 다사를 하는 것과 차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가 없이 차를 마주하는 것은 차의 본성을 살리고 죽이는 것과 같다. 茶란 茶로서의 본질을 살릴 때 茶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85) 육우의 『茶經』에는 “도홍록의 『잡록』에는 ‘차는 마시는 사람의 몸을 가볍게 하고 뼈까지 바꾼다. 옛날에 단구자와 황산군 같은 선인들이 이를 마셨다.’ 라고 적혀 있다.”란 구절이 나온다.

3. 김시습 시에 나타난 차의 의미

김시습의 일생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타고난 천재성과 유학의 높은 학문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는 그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났지만 그의 몰락한 가정은 그에게 경제적인 부도 권력도 연결해 주지 못했다. 시절마저도 그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를 산수자연으로 내모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이로써 그는 정치의 주도세력도, 향촌에 몸담은 처사도 아닌 고독한 방외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올바른 이념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남아 있을 의지를 상실하고 기약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는 자연에 몰입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잊으려 하였다. 본 장에서는 김시습의 다시를 통해, 그의 삶에서 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망해 보기로 한다.

1) 고독한 유람의 반려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하던 무렵 김시습은 오탁악세를 버리고 불문에 귀의하여 고독한 유람의 길에 나선다. 그는 울분을 달래고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잊어 내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불가에 몸을 의지한 채 마음의 안식을 찾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한 그의 유람은 고독한 이정표였다. 유학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는 공간은 그에게 고독한 현실이었고 끝없는 자아성찰의 삶이기도 하였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고독은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 다녔다. 고독은 그 자신의 삶이었고 그의 길이었다.

원래 孤獨은 홀로 있음을 의미하며 삶의 동반자나 생계의 보조자가 없는 궁핍한 처지를 가리키는 말로, 고독을 의미하는 말에는 ‘慎獨과 獨善, 獨樂’이 있다. 『中庸』에, “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남이 그를 보지 않는 곳에

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남이 그에 대하여 듣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가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⁸⁶⁾라고 하였다. 군자가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은 수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홀로 있을 때 구속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방종으로 이어지는不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곧 慎獨에서의 獨은 도덕적 자아의 확립을 의미하며, 이는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도덕적인 자아의 확립을 말한다.

『孟子』에 ‘獨善’은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홀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고, 출세하게 되면 함께 천하 사람들을 선하게 했던 것이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고 말하고 있다.⁸⁷⁾ 이는 군자가 뜻을 세워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러한 지위를 얻지 못하면 홀로 물러나서 혼자서 만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혼자서 만이라도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란 군자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선은 인생의 바른 삶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며, 독선이란 군자의 철학적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獨樂’은 홀로 즐기는 것이다. 홀로 즐기는 대상은 자연이며 자연은 현실적 삶의 장소인 세속으로부터의 일탈이다.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 공간인 자연은 세속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자유의 공간으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촉진시켜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고독은 현실적 삶과 정신적 삶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자신의 내면적 성찰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고독은 심리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정신생활의 일면을 더욱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김시습은 자신을 아껴주던 세종을 잊지 못하고,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할

86) 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 김학주 역주, 『중용장구』 제 1장, 『中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5

87) 맹자지음, 박경환 옮김, 『孟子』, 盡心章, 2008, p364.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조마저 왕위를 찬탈하니 그는 세상에 미련을 둘 여지를 찾지 못했다.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은 그를 獨善의 삶으로 이끌었다. 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며 자신을 성찰하는 獨樂한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孤獨한 심사를, 산천을 유람하며 마음을 투영시켰고, 차를 마시며 차와 일체감을 느끼는 가운데 잊고 싶은 현실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

그는 올바른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을 떠나 산수 간에 은거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개한 일을 만나게 됨에 내 이르기를,

“남아가 이 세상에 나서 도를 행할 만한테도 몸만을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게 함이 부끄러운 것이요, 만약 행할 수 없다면 홀로 그 몸만을 착하게 함이 옳다.”

하고 똥똥 사물 밖에 떠서 도남(圖南)·사막(思邈)의 풍모를 우러러 사모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습속에 또한 이런 일이 없어 어물어물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에 모두 깨닫기를,

“만약 옷에 검은 물을 들여 입고 산 사람이 된다면 소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⁸⁸⁾

김시습은 자신이 추구하던 유교정치의 이상이 무너진 것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가치가 뒤바뀐 윤리나 이념이 다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자신이 지키고자 한 절의와 수행을 끌어안은 채 기나긴 유람을 떠났다. 충절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은 혼자서 만이라도 절의를 지키려는 獨善의 삶에 충실하게 하였다. 그가 가슴에 쌓인 울분을 풀 수 있는 길은 명산을 편력하며 괴로움을 잊는 것이었다.

洞仙驛

洞府如仙境

동부는 신선의 경계 같은데

人居似武陵

인거(人居)는 무릉과 비슷하구나.

88) “一日 忽遇感慨之事 以謂男兒生斯世 道可行則潔身亂倫 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 可也 欲泛泛於物外 仰慕圖南思邈之風 而國俗且無此事 猶豫未決 一夕 忽悟若染緇爲山人 則可以塞願”, <宕遊關西錄後志>, p.237. ; 2권, p.126~128.

禮殊樽俎異
山疊紫霞蒸
麥壟風吹細
茶原暖氣騰
行行回首望
岵嶺碧稜稜

예 다르니 준조(樽俎)도 서로 다른데
산 겹겹하니 자줏빛 노을이 피어 오르네.
보리밭엔 산들바람이 가늘게 불고
차 심은 둔덕엔 따뜻한 기운 오르네.
가다가 머리 돌려 바라다보니
질령의 푸르름이 섬짓하여라.⁸⁹⁾

김시습은 장삼을 걸치고 산인이 된다면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없는 유람의 길을 떠났다. 그는 관서지방을 필두로 전국의 자연경계와 산사를 돌면서 현실에 대한 울분과 좌절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겹겹이 싸인 산 준령을 넘어, 차 심은 언덕을 머리 돌려 바라보니 준령의 푸른 기운이 힘차게 밀려온다. 그의 시 <看壁畫>에는 “얼마나 다행인가 명산을 유람함이, 진묘한 도리에 참여할 수 있으니, 향불 사르고 두루 귀의하여, 일찍이 세속의 번뇌에서 해탈하기 원하네.(何幸遊名山 得參眞妙道 蕪香普歸依 願早脫塵惱)”⁹⁰⁾라고 하여 그가 세속을 벗어나 명산을 유람하는 것이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람을 하면서 향을 불사르고 귀의하여 불도의 묘리를 탐구하고 구원의 본원에 이름으로써 현실의 갈등을 잊는 自己求道를 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산천을 떠돌던 그는 “물 따라 구름 따라 삼백 리인데, 해가 가고 달이 감은 긴 여정이네, ……이 몸은 어디에 가 머무를 거나?, 천지에 임의로 뜬 부평초라네. (水雲三百里 歲月一長亭 … 此身何處泊 天地任浮萍)”⁹¹⁾라고 하며 머무는 바 없이 천지간을 떠다니는 자신의 고단한 신세를 자탄하였다. 그는 두견이를 노래한 시에서도 “돌아감이 좋은 것만 같지 못하나, 어느 곳이 편안하게 돌아갈 데냐?, 벼슬길엔 바람과 파도가 싫고, 공후(公侯) 집엔 아는 사람이 드물어, 사람되어 언제나 근심하면서, 그림자를 슬퍼함에 안타깝구나.”⁹²⁾ 이라고 방랑의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험한 세상엔 돌아가도 아니 돌아감만

89) p.223. ; 2권, p.62.

90) p.241. ; 2권, p.138~139.

91) <峽中人家>, p.230. ; 2권, p.91~92.

92) “不如歸去好 何處可安歸 宦路風濤惡 侯門知識稀 爲人長戚戚 弔影正依依”, <不如歸>, p.243. ; 2권, p.150.

못하고 아는 이도 드물어 제 몸과 그림자가 서로 애뜻하게 여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이 가득 풍겨 나온다. 가슴에 화를 잊고자 시작한 유람은 어느새 지치기 시작하였고 육신은 병들어, 한 없이 떠도는 자신의 신세를 두견이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고독한 심사가 절절하게 드러난 김시습은 삼백 리 돌고도는 세월에 내일은 어느 산, 어느 사찰에서 하루를 머물 것인지 처연한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부평초 같은 그의 쓸쓸한 마음은 한가위를 맞는 가을쯤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슴을 파고 후벼든다. 다음 시는 어느 객지에서 맞은 한가위에 산천을 떠도는 허허로운 마음을 인간적인 감회로 그려내고 있다.

客中望中秋月

中秋何以慰清愁
一味新茶滿玉甌
丹桂幾經寒暑變
冰輪應轉古今秋
夜談牛渚追前事
乘興南樓憶舊遊
來歲不知何處看
十分流彩遍南州

중추에 무엇으로 맑은 수심 위로하나
맛 좋은 새 차가 옥사발에 가득하네.
단계(丹桂)는 한서 변함 몇 번이나 겪었나?
빙륜(冰輪)은 응당 예와 이제 가을에 굴리리라.
우저(牛渚)에서 밤에 전의 일을 추억하여 말하고
남루(南樓)에서 흥이 나니 옛 유람을 생각하네
내년엔 어디에서 또 볼지 모르지만
모든 유채(流彩)를 남주(南州)에다 두루 퍼게.⁹³⁾

객중 어디선가 맞이한 추석은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자신과 같이 안주할 곳이 없는 단계는 춥고 더운 계절을 몇 해나 반복했는지, 자신의 반복되는 유람에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본다. 둥근 보름달이 뜬 것을 보니 한가위 맞는 가을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옛일이 생각난다. 내년 이맘때쯤엔 또 어디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인생에 밀려오는 처연한 그리움은 맑은 수심으로 차오르는데, 이를 위로한 것은 옥사발에 가득한 맛 좋은 햇차였다. 햇차 한 사발에, 떠도는 시름도 내려놓고 인생사 부리던 짐마저 다 잊게 하니, 맛 좋은 햇차는 강호를 떠도는 행각승에게는 더 없는 동반자이고

93) p.254. ; 2권, p.196~197.

만려자였다. 바람 스치고 구름이 흘러가듯 산하를 행운 유수하는 김시습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고 안위해 주는 것은 오직 향 가득한 차뿐이었다. 차를 마시는 그의 마음은 유람을 하면서 세속의 영욕을 모두 잊었다고 하였다.

長安寺

松檜陰中古道場	소나무와 전나무 옛 그늘 속의 옛 도량(道場) ⁹⁴ 에
我來剝啄叩禪房	내가 와서 박탁(剝啄) ⁹⁵ 하게 선방(禪房)을 두드리네.
老僧入定白雲鎖	늙은 중은 선정(禪定)에 들고 흰 구름만 잠졌는데
野鶴移棲清韻長	야학(野鶴)이 옮겨서 깃드니 맑은 운치 길구나.
曉日升時金殿耀	새벽에 해 떠오를 때 금빛 전각 빛나고
茶煙颯處蟄龍翔	차 김이 날리는 곳에 서린 용이 날게치네.
自從遊歷清閑境	청한한 경계를 두루 유람하면서부터
榮辱到頭渾兩忘	영욕을 마침내 둘 다 잊어버렸네. ⁹⁶

공자 이래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歲寒高節’을 상징한다.⁹⁷ 그는 현실정치를 떠났으나 군자의 고절한 기상과 절개를 버린 것은 아니어서, 그의 지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그가 아직도 이상 정치 실현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근본을 지키는 독선의 의지를 지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진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옛 도량을 찾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고요한 산사에 흐르는 흰 구름은 노승의 말없는 벗이 되고 들에 노니는 학이 놀러와 깃드니 맑은 운치가 더한다. 이 풍광을 김시습은 내금강에서 푸른 벼랑에 학이 깃들여 이슬내린 달밤에 기이한 울음을 우는 소리에 마음이 끌렸다고 술회하고 있다.⁹⁸ 법당의 전각은 새벽빛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찻물 끓어오르는 김은

94) 도량(道場) : 불교 또는 도교를 수업하는 곳. 여기에서는 보리수 하의 금강좌불(金剛座佛)에 공양하는 곳을 인용하여 일반도량을 말한다.

95) 박탁(剝啄) : 소곤소곤하는 음성의 형용이다. 또는 방문자의 발자욱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말한다.

96) p.240. ; 2권, p.136~137.

97) 조기영, 위의 책, p.308.

98) “蒼崖栖鶴處 松老一枝欹 蕙帳空時怨 芝田秀處燼 千年華表態 萬里碧空思 月露聲尤警 沖天骨格奇” <巢鶴>, p.243. ; 2권, p.148. “萬里無雲山月明 一聲嘹唳動人情 沙明水碧三清洞 幾度

마치 숨은 용이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듯 힘차고 유연하다. 세속의 티 하나 없는 깨끗한 풍광을 찾아 두루 유람하니 세상의 영욕도 나도 둘 다 잊어버린 忘聞의 경계이다. 세속의 영예를 모두 잊은 무아의 경지는 청아하고 고아하여 속됨이 없다. 영욕을 잊은 맑은 운치는 자연 하나 되는 고담한 자아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말도 잊고 생각도 버리며 묵묵히 관조하는 가운데 세속의 영욕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物我不二의 청정한 자성을 추구하는 내적 희열을 느끼게 한다.

김시습은 차를 벗 삼고 자연을 관조하는 마음을 호탕한 놀이였다고 술회하면서, 어떠한 관념이나 구속에서도 자유스럽고 활달한 마음상태를 추구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관서지방을 유람한 후에 「遊關西錄」을 엮은 그 <後志>에, 차를 달이며 그의 유람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또 묘향산에 올라가 남쪽으로 발해에 있는 도서의 아득함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북녘 사막에 있는 산하의 험조(險阻)함을 보고, 바위 집 문에 앉아 맑은 달을 짚었다. 어떤 때는 시냇가의 돌에 의지하고, 어떤 때에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소나무와 참나무가 하늘에 치솟고, 버섯이 낭자하며, 새와 짐승의 기이하며 괴상함과 풀과 나무의 정화(精華)를 보니, 모두 나로 하여금 혼연히 시를 읊조리게 함에 혹은 나뭇잎에 쓰고, 혹은 바위 벼랑에 써 놓았다.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자재하게 잠자코 앉아 차를 달이고 나물을 먹으니, 사려를 떨쳐버리고 속정을 잊어버림에 족하였다.99)

김시습에게 자연의 모든 사물은 시를 읊게 만드는 소재가 되었다. 관서의 험준한 산악과 초목은 그의 시상을 자극하였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마시는 차는 독락의 즐거움을 탐하는 시의 영역이 되었다. 그는 장엄하고 엄숙한 자연의 생명력에 동화되어 자연 속에 자신을 담아 보이고 있다. 자연은 김시습과 동떨어진 대상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는 천화의 대상이었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실

乘風上玉京” <聞鶴>, p.243. ; 2권, p.148.

99) “又登香嶺 南望渤海島嶼之縹緲 北眺朔漠山河之險阻 坐巖扃 伴明月 或倚澗邊之石 或登巍峨之峯 見松樅參天 蔬菌狼藉 鳥獸之奇怪 草木之精華 皆使我欣然吟哦 或題樹葉 或書巖崖 還于蓬廬 儻然默坐 煮茗茹蔬 足以遣慮而忘情矣.”, <宕遊關西錄後志>, p.237. ; 2권, p.127~128.

존적 존재였다. 자연에 동화되고 정화된 마음으로 오두막에 돌아와 마시는 차 한 잔은 미처 버리지 못한 세속의 끈들을 모두 가라앉히는 淨水였다.

龍泉寺

梵宮牢落似村家
 茶罷鍾聲散暮鴉
 松檜陰中僧入定
 薜蘿垣上薜生花
 雲飛屐上思靈運
 風動帽簷憶孟嘉
 耐可息心如惠遠
 朱薨粉壁鎖煙霞

범궁(梵宮)이 헐어서 시골집인양 초라한데
 차(茶) 마시자 종소리에 저문 까마귀 흩어지네.
 소나무·진나무 그늘 속에 승은 정(定)에 들어갔고
 청미래 칩덩굴 얽힌 담 위에 이끼 꽃이 활짝 피었네.
 나막신 위에 구름 나니 영운(靈運)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바람이 갓 [冠] 챙을 들썩이니 맹 가(孟嘉)가 기억나네.
 참고서 마음 가라앉히기 혜원(惠遠) 같으면
 붉은 기와 흰 벽에 안개와 놀 잡아 두리라.¹⁰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헐어버린 낡은 절간에서 선정에 든 노승의 모습은 오래된 고서화 같은 느낌마저 준다. 이끼 낀 담장 위로 부는 바람에 맹가의 주홍 같은 속정이 일어나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에 들어 본다. 인간인지라 흐르는 세월과 변하는 자연 앞에서 고독한 방랑자의 소슬한 정회가 일어나지만, 부질없는 번민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잡고 좌선에 든다. 좌선에 들어 인연의 끈을 놓아 버리고 세간의 영욕을 씻은 獨樂은 보현사에 이르러 깊어져 간다.

寓普賢寺 書懷贈人

自我來普賢
 心閑境亦便
 石鼎沸新茗
 金爐生碧煙
 以我方外人
 從遊方外禪
 問道道愈梗

내가 보현사에 오고부터
 마음도 한가하니 지경도 편안해
 돌솥에다 새 차를 끓여 내고
 쇠 향로엔 푸른 연기 피어오르네.
 나 같은 방외(方外)의 사람으로서
 속세 떠난 선사를 따라 놀면서
 도(道) 물으니 도는 더욱 굳어져 버리고

100) p.140. ; 1권, p.258.

觀心心更研
 了無纖塵迹
 只有孤雲旋
 人生百年內
 此樂何如焉

관심(觀心)하려면 마음을 다시 닦아야겠네.
 분명히 작은 티끌은 자취가 없는데
 외로운 구름만이 돌고 도누나.
 사람살이 백 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 같은 즐거움이 어떠하겠나?¹⁰¹⁾

세간의 영욕을 버리고 觀心하여 마음을 닦으니 지경이 한가하고 편안해진다. 돌술에 차를 끓여 마시고 나니 작은 티끌도 자취 없이 사라져 사람살이 누릴 만한 가치가 있음에 자족하고 있다.

南山訪七休

七休居士休休者
 得休休處便休休
 雲山花月長爲伴
 詩酒香茶自買憂
 翦燭夜飲清夜永
 銷沈宵短繼宵遊
 欲知七休遨遊處
 風滿池塘五月秋

칠휴거사(七休居士) 당신이 아름답고 착한 것은
 아름다움 얻은 곳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운산(雲山)과 화월(花月)로 항상 짝을 삼으며
 시주(詩酒)와 향다(香茶)로 제 근심을 사는구려.
 촛불 돌아 야음(夜飲)하니 맑은 밤이 길어지고
 소침하여 밤 짧으니 방을 이어 노는구려!
 칠휴의 오유(遨遊)한 곳 알려고 한다면
 바람이 지당(池塘)에 찬 오월을 찾아 보게.¹⁰²⁾

마음을 쉬고 쉴 줄 아는 칠휴거사에게 운산과 화월은 평생토록 짝이 되어 주고 시와 술, 향차는 근심을 잊게 하는 반려자이다. 촛불 돋우어 밤새도록 마시는 차는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 육우의 『茶經』에는 “근심이나 분노를 털어버리려면 술을 마시고, 어리석음이나 혼미함에서 벗어나려면 차를 마셔야 한다.(鑷憂忿飲之 以酒 蕩昏寐飲之 以茶)”¹⁰³⁾ 라고 하였다. 좋은 차 한 잔은 마음의 번뇌를 잊게 하는 명약과도 같다. 그는 또 누워서 산과 산기슭의 나무를 보고 있으면 번뇌를 잊는다 하였다. “나무 그림자 어둑어둑 한가한 뜰에 떨어지는데,

101) p.232. ; 2권, p.102~103.

102) p.186. ; 1권, p.443.

103) 육우, 『茶經』, 六之飲.

누워서 피와 산 사면의 푸르름 보고 있네. 그것이 그 산중의 뜨거운 번뇌 없애는 것, 돌 틈의 샘 소리는 절로 졸졸 흐르네. (樹陰翳翳落閑庭 臥看峯巒四面青 箇是山中無熱惱 石罅泉響自泠泠)¹⁰⁴라고 하여 한여름 나무들의 무성한 푸르름을 보고 자신의 번뇌가 사라짐을 느낀다. 그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씻고 울분도 근심도 사라진 평화로운 심경으로 차를 마신다. 근심이 사라진 차 한 잔은 독선독락을 즐기는 고독한 유람의 반려자였다.

2) 無心自空의 매개체

사대부들이 차를 소재로 하여 시를 쓴 까닭은, 차가 단지 영물로서의 차,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방편으로서만 보는 차가 아닌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열고, 정신적인 수행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차가 전래된 이래 선가에서 차는 깨달음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왔다. 안으로 유교의 윤리를 근간으로 하되 밖으로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사찰을 중심으로 각종 의식에 차를 사용하였고 국제 외교상의 중요한 예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의 崇佛政策으로 많은 사찰이 건축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高僧들이 배출되면서 선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선승들은 좌선을 할 때 調食, 調睡眠, 調身, 調心, 調息의 5調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한다. 이때 睡眠은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고통이어서 선사들은 飲茶로써 이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차의 효능은 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여 욕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차는 禪修行에 있어 꼭 필요한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수행 중 휴식을 위한 기호음료로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좌선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재배하고 법제하는 과정은, 까다롭고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로 마치 수행하는 것처럼 집중을 하고 몰두하여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속세의 妄想을 여의고 自我의 執着에서 벗어나 煩惱를 여의게 되어, 차와 선은 둘이 아닌 茶禪一如의

104) <翳之山居> p.138. ; 1권, p.250.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의 이규보는 그의 시 <遊天和寺飲茶 用東坡詩韻>에서 차삼매에 빠진 다선일여의 사상을 읊고 있다.

一筇穿破綠苔錢	한 지팡이 돈짝 같은 푸른 이끼 뚫어 깨니 ¹⁰⁵⁾
驚起溪邊彩鴨眠	시냇가 조는 오리 놀래 깨네
賴有點茶三昧手	차 끓이는 오묘한 수법 힘입어
半甌雪液洗煩煎	눈 같은 진액 반 그릇으로 번민을 씻는다. ¹⁰⁶⁾

이 시는 이규보가 茶를 끓이는 과정에서 번민과 근심이 사라져 茶의 삼매에 든 모습이다. 차를 달이면서 삼매에 빠지는 것은, 茶는 그만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끓이기 때문이다. 그는 <房狀元衍寶見和 茶韻答之>에서도 차 한 잔이 참선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다음날 그윽한 암자 찾아가, 두어 권 서책 펼치고 현묘한 이치 토론하리, 이 몸 늙긴 했어도 손수 샘물 뜰 수 있으니, 한 바리때 물 떠 놓고 참선할까 하노라 (草庵他日叩禪居, 數卷玄書討深旨, 雖老猶堪手汲泉, 一甌卽是參禪始)”¹⁰⁷⁾라고 하여 차를 마시며 참선하는 선적 체험을 시로 나타내고 있다. 사대부들이 차를 마시며 참선수행을 하는 것은, 차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자기초극의 노력이었다.

김시습은 참선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5) 여기에서 녹태전을 “돈짝 같은 푸른 이끼 뚫어 깨니”라고 풀이한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석용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떡차를 갈아서 차를 끓여 마셨다. ‘돈짝 같은 푸른 이끼’라고 표현한 것은, 차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誤譯이다. 이는 차에 푸른 이끼가 낀 것처럼, 차의 생김새나 모양이 변한 것을 말한다. 당시에는, 일부 권력층에서 사용한 화폐의 모양이 떡차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녹태전이라고 시에 이용된 듯하나, 이 또한 차의 이름은 아니다. 당시 떡차의 종류에는 뇌원차, 대차가 있었으나, 전차는 없었다. 녹태전이라는 것은, 차가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밀랍이나 꿀을 발라 만들었는데, 이 위에 푸른 곰팡이가 이끼처럼 끼어 있는 모양을 보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러므로 녹태전이라는 것은 돈짝 같은 푸른 이끼가 아니라, 곰팡이가 푸른 이끼처럼 보이는 차의 상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도 차를 깨는 ‘절구공이’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석용운 스님의 말씀, 2010년 1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무안초의선원.

106) 이규보, 『東國李相國全集』卷第三, 古律詩.

107) 이규보, 『東國李相國全集』卷第十三, 古律詩.

바람벽 바라보고 사념하는 것 나는 능치 못하여도, 일 없는 것 좋아라고 오랫동안 산 중 [山僧] 과 친하였네.¹⁰⁸⁾

그는 한가한 것을 좋아하다보니 선승들과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 출가하여 참선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김시습은 유람 자체가 선이라 생각하고 선을 삶의 영역으로 연장시켜 보았다. 그가 참선하는 논리는 다음의 글에서도 보여진다.

대저 사람들은 선이란 선정하여 편안하고 한가하다는 뜻이라 말하고, 선이란 글자가 곧 생각하고 닦으며 고요히 생각한다는 말임은 알지 못한다.¹⁰⁹⁾

禪은 드야나(Dhyana)라는 범어를 번역한 선나의 약칭으로서 精慮, 正定, 正思惟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¹⁰⁾ 禪이란 올바른 좌선 방법으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산란심을 멈추고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다. 선은 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 복잡한 번뇌 망상을 비우고 마음을 안정시켜 하나 되게 하는 ‘定’의 수행이다. 선은 고요히 사유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精慮 혹은 正思惟한다고 해서 단지 조용하게 사색하고 명상에 잠겨 추리추론을 하는 뜻이 아니다. 禪定이라든가 三昧라는 것은 無念無想의 의미 곧 멍한 상태의 공백상태라든가 일종의 활활경에 빠져 드는 것이 아니다. 無念無想이란 심중에 한 점의 雜念도 없이 한 가닥의 妄想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온 정신의 활동이 멈추어 버려 멍한 공백상태가 된다는 일종의 활활한 忘我之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정이나 삼매는 그와 같은 의미의 무념무상이 아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을 暗證禪 내지 死人禪이라 불렀다. 무념무상이란 잠념 내지 망념이 일지 않고 本來淸淨心 내지 自性淸淨心이 유지되는 것이다. 三昧란 범어의 삼마디(Sammādi)를 한자로 음사하여 삼마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여념이 없는 것, 一心不亂하게 사물을 대하는 것”의 뜻이다. 삼매라는 말에는 心境一如하고 物我不二한 것 · 正受하여 不受한 것 ·

108) “面壁觀空我豈能 愛閑長是伴山僧”, <排譴>, p.95. ; 1권, p.71~72.

109) “夫世人稱禪, 是禪定安閑之意, 未知禪字乃思修靜慮之稱”, <無思第一>, p.329.

110) 김호귀, 『북조선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6, pp.28~34.

정념이 일관되게 상속되는 것 등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하나로 통일한 것이 곧 삼매이다. ‘心境一如하고 物我不二 한 것’은 관찰 대상의 객체와 관찰하는 주체 간에 구분이 없는 경지이다. 三昧는 無念無想의 경지를 통해 체험된다. 그리고 無念無想은 三昧를 통해 그 마음 상태를 점검받는다. 無念無想의 三昧를 통해 존재의 실상을 깨우쳐 일체가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선의 본질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와 선은 하나로 이어져 茶禪三昧에 이를 수 있다. 차를 끓이고 우려내는 과정은 마음을 집중하여 잡념을 없애고, 주체와 객체를 여의어 물아일체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차를 우려야 차의 성품을 살리고 차의 정신을 현묘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경일여의 상태에서 우려낸 차는 그 참됨을 잃지 않고 청정한 맛을 낼 수 있다. 茶의 本性은 사람의 本性和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古風 (19-7)

坐久不能寐	오래도록 앉았어도 잠 못 이루어
手翦一寸燭	한 치 남은 촛불 심지 베어내었네.
霜風聒我耳	서리 바람 내 귀에 들려오더니
微霰落床額	싸락눈 침대 가에 떨어졌네.
心地淨如水	마음 속 깨끗하기 물 같아서
儵然無礙隔	술명하게 장애되고 막힘이 없네.
正是忘物我	바로 그것이 너와 나를 모두 잊는 것.
茗椀宜自酌	잔에 가득 차나 따라 마심이 좋네. ¹¹¹⁾

오랫동안 참선을 하였건만 잠은 오지 않고 의식만 더욱 또렷하게 밝아져 온다. 오래도록 앉아 있었더니 마음은 맑은 물 같아 막힘없는 明鏡止水와 같다. 주관의 개입이 없는 空의 실체로서, 차 한 잔으로 모든 경계를 여의는 선적 정취를 한껏 드러낸다. 차를 끓이고 마시는 과정은 마음의 움직임이 일체 끊어진 止滅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는 마음이 끊어진 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바람 자니 술 비친 창이 고요해지고, 향은 사그라져 선실(禪室)도 한가하구나,

111) p.89. ; 1권, p.49.

이승을 내 벌써 끊어버리니, 행적을 수운간(水雲間)에 머무르리라. (風息松窓靜 香銷禪室閑 茶生五已斷 棲迹水雲間)¹¹²⁾라고 하며 이승에 대한 번민이나 집착을 여의고 그저 구름 따라 물 따라 몸을 맡기고 싶어 한다. 이승에서의 집착을 끊어 버린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것은, 無心自空의 경계이다. 관조의 세계에서 이승을 초월한 차 한 잔은 막힘이 없는 空寂의 法喜를 느끼게 한다.

燈下

燈下茶聲咽
惺惺坐似株
是身如幻沫
此影竟塗糊
夜雪敲窓冷
山雲羃地無
花明餘燼落
堦暖卷氍毹
南寺僧來後
東山上月初
閑心多放曠
靜意似籬篠
積雪明林薄
可庭霜桂影
寒風入帳疏
分與爾爲居

등 아래서 차 끓는 소리 나는데
똑똑히 앉았으니 나무 그루와 같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은데
이 그림자 끝내 멍청하여라.
밤눈이 창을 두드려 냉랭한데
산 구름은 땅에 덮여 없어진다.
꽃 밝더니 남은 불꽃이 떨어지고
구들 [堦] 따뜻하여 담요 [氍毹] 를 걷는다.
남쪽 절의 스님 온 뒤에
동쪽 산의 저 달은 오르기 시작했네.
한가한 마음 방탕하고 허술함 많은데
고요한 뜻 병신과도 비슷하여라.
쌓인 눈은 수풀까지 환히 비치고
탄 바람 휘장 안에 들어와서 엷어졌다.
뜰에 비친 서리 맞은 계수나무 그림자
그대에게 나누어 주어 살게 하리라¹¹³⁾

등잔 아래 차 끓는 소리 나고, 반듯하게 앉아 좌선을 하는데 마음이 가벼워져 몸이 사라지는 삼매에 빠진다. 좌선을 할 때 경계에 들면 몸의 무게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주체와 객체의 분별이 없어진다. 마치 새털과 같은 가벼운 느낌이 들어 몸과 마음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깊은 고요 속에 침잠하게

112) <晚意> p.233. ; 2권, p.104~105.

113) p.104. ; 1권, p.108~109.

된다. 이때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지고 의식을 초탈한 삼매만 있을 뿐이다. 의식의 경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주객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의 무상함이 구름과 같이 허허롭다. 김시습은 <坐禪>에 “좌선함은 무슨 일을 인연함인가, 세상의 어지러움 쓸으려 하네, 뜻 얻음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동행에는 참으로 짝이 드물구나. (坐禪緣底事 掃却世紛塵 得意從誰問 同行正少雙)”¹¹⁴⁾ 그가 좌선을 하고 선을 닦는 것은 세상의 어지러운 마음으로 인한 번뇌를 쓸어내리려는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상이 좌절되고 현실에 안주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심적 보상인지도 모른다. 득의를 구하고자 함께할 도반이나 이를 깨우쳐 줄 선지식이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법을 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깨달음은 멀고 먼 길이기 때문이다.

김시습은 오래된 선방에 들러 스님이 따르는 차 한 잔에 인생의 무상을 절감한다.

見巖寺

古木千年地
禪宮何代開
竹房僧掛錫
松蓋鶴留胎
慰客新煎茗
添香自撥灰
浮生安足道
个是出塵埃

고목 서 있는 천년된 이 땅에다가
선궁(禪宮)을 어느 때에 세웠다더냐?
죽방(竹房)엔 중이 석장 걸어 놓았고
솔 일산에 학이 타를 머물렀다네.
객 위로하러 새로 차를 달이는데
향 더하러 스스로 재를 해치네.
부생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그것이 티끌세상 벗어난 것일세.¹¹⁵⁾

천년 된 고목이 서 있는 사찰에 선방을 둘러보았다. 선방은 언제 세웠는지 오랜 역사의 흔적이 감돌고, 죽방엔 스님의 지팡이가 서 있다. 참선하는 스님의 벗인 소나무 위엔 학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 선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114) p.239. ; 2권, p.132.

115) p.266. ; 2권, p.240~241.

소나무, 학은 속세를 벗어난 선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곳이 청정도량임을 의미한다. 노승은 손님에게 줄 차를 새로이 타는데, 나그네인 김시습은 재를 헤치며 독각 스님에게 무언의 위로를 보낸다. 외로운 운수행각을 하는 김시습의 마음을 스님은 마치 자신의 모습인양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쓰고 달고 신 맛을 다 맛보는 떠돌이 인생은 차의 오미와 같다. 김시습은 차의 쓰고(苦), 맵고(澁), 시고(酸), 짜고(鹽), 단(甘) 다섯 가지 맛을 통해 인생의喜怒哀樂을 자신의 삶에 투영시켰고, 찻물을 끓이고 차를 달여 마시는 단순한 일을 통해 모든 정신적 번뇌를 소진함으로서, 有我의 執着에서 벗어나 無我無心에 이르렀다.¹¹⁶⁾ 차를 달이고 마시는 과정은 주관과 객관의 경계를 떠나 일체가 공함을 체득하고 자공의 法喜를 느끼는 선적 감수성이다. 이자는 김시습이 경주에 있는 시절, 선에 대하여 사상적 고뇌를 정리한 그의 선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선리(船離)는 아주 깊어서 생각하기를 다섯 해나 해야만 투명하게 깨우친다. 우리 도(道)로 말하면 본래 등급이 있어서 마치 건강한 자가 사닥다리를 오를 때 한 발을 들면 곧장 한 층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¹¹⁷⁾ 돈오(頓悟)하여 신속하게 결판을 내는 즐거움은 없지만 우유(優游)하여 젖어드는 맛이 있다.¹¹⁸⁾

116) 고정불변한 존재자로서의 我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는 我는 인간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假我(五蘊-色, 受, 想, 行, 識의 쌓임일 뿐 실체적인 我는 빈 쌓임의 무더기)일 뿐이지 眞我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自我가 존재한다는 집착을 깨뜨리면 無我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덕진, 『儒敎와 佛敎의 生死觀에 대한 一考察』, 『보조사상』 제15집, 보조사상연구소, 2001, pp.10~12.

117) 선에는 네가지(四禪) 단계가 있다. 사선이란 선정이 진행되는 단계를 넷으로 나눈 수행의 실행단계이다. ①初禪 : 초선이란 마음을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는 사이에 차례로 신체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한 마음을 떠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 대상에 대하여 분별하고 사려하는 심경이다. ②二禪 : 수행자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대상에 대한 분별, 사료의 작용이 소멸되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희락을 느끼게 된다. ③三禪 : 제 이선에서 느끼는 희열마저 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평정한 상태가 되어 正念, 正智가 나타나서 희락의 마음을 억제하고 더욱 깊이 정신이 집중된 상태이다. ④四善 : 제 삼선에서 얻은 신체의 평안함도 사라지고 완전히 고락을 초월하여 정신의 평정이 순화된 부동의 상태 즉 명경지수와 같이 맑아져서 일체의 대상과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관법의 대상은 하나 남김 없으니 그대로가 자기가 되는 것이다. 김중만, 『불교의 참맛』, 협신인쇄문화사, 1993, p.152.

118) “禪理頗深, 思量五載, 乃得透開, 如吾道自有階級, 若健者之升梯, 纔舉一足, 遽達一重, 無頓悟快決之樂, 而有優游涵泳之味”, 李紆, 『梅月堂集序』, 序.

차와 선은 자기를 찾기 위해 일체의 가식과 인위를 탈피한다는 점에서 차와 선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다.¹¹⁹⁾ 가식과 인위를 버린다는 것은 청정한 自性心을 발견하여 무명에 가리워진 本源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비분별을 떠나 오로지 마음의 근저에 있는 본원을 찾을 뿐이다. 이를 김시습은 다음과 같이 일갈하고 있다.

與僧夜坐

半輪明月照西床	반 둥근 밝은 달이 서쪽 상에 비치는데
小罐煎茶熱炷香	작은 다관에 차 달이며 향불을 피어놓네.
共是操心同一致	함께 마음 잡으려 하는지라 운치도 동일하니
莫將玄白錯商量	검고 흰 것 가지고 생각하기 착오 말아라. ¹²⁰⁾

검고 흰 것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分別識을 가진 알음알이라고 한다. 검고 흰 것 자체가 망상인데 그것을 思量分別로 따지고 헤아리는 것은 부질없는 是非 거리에 불과하다. 선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智慧의 證得에 있다. 지혜란 假我的 집착에서 벗어나 眞我를 찾는 것, 즉 本源淸淨한 본자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이를 찾는 하나의 방편으로 불가에서는 차를 마시며 참선에 들어 본자리에 이르는 수행을 택하기도 한다. 선과 차를 매개로 하여 마음자리를 찾는 것은 하나의 수행이어서, 검고 흰 것을 분별하지 말고 自性的 자리를 밝히라고 한다. 김시습과 선승은 차를 달이며 무심한 마음으로 무릎을 맞대고 선담을 나눈다. 이미 온갖 소리가 잠잠하여 잡다한 번뇌와 세속의 번잡스러운 일은 다 잊고 무심한 경계로 차를 나누고 있다. 번뇌를 여의고 마시는 차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직각적인 파악에 의하여 맑고 고요한 마음의 세계를 열어 준다.

김시습은 모든 분별의 근저에 놓여 있는 본래적 絕對境을 본원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 본원을 다음과 같이 시에 나타내었다.

119) 조태성,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 호남학연구총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p.108.

120) p.296. ; 2권, p.358~359.

上略

觀彼萬丈潭
風靜波光徹
秋月印其底
罔罔頗清越
觸之不可散
蕩之亦不失
可比老師心
道義逾激烈
豁然徹本源
不生亦不滅
靜觀萬像澄
印我方寸地
到頭竟難名
名菴聊以寄
他年放下着
是亦渾閑事

저 만길 깊은 못을 바라 보건데
바람 고요 물결 빛은 맑기도 하여
가을 달이 그 밑에 비치었는데
빛나고도 껍이나 깨끗하여서
건드려도 흩어지게 할 수 없었고
흔들어도 없어지지 또한 앓았네.
늙은 스님 마음과 비길만 하여
도의 뜻은 더욱 더 격렬하였네.
시원하게 본원(本源)에 통하게 되면
생멸(生滅)도 또한 없을 것이라.
고요하게 만상(萬象)의 맑음을 보니
나의 방촌(方寸) 마음에 인을 쳐주네.
도저히 이름을 하기 어려워
암자를 이름하여 그렇게 부치오.
뒷날에 안심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도무지 한가한 일이라.¹²¹⁾

마음은 만길 깊이에서 맑고 맑아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라 하여 집념을 놓아버리면 본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오래도록 참선수행에 정진한 노승은 견식을 놓아버림으로써 不生不滅 無始無終의 禪根에 통달하였다. 『蒙山法語』에도 “마음은 물에 비친 달과 같아 흔들려도 움직임이 없다”라고 마음의 본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몽산스님도 마음에 대하여 ‘마치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아, 세찬 여울 물결 속에서도 반짝 반짝 살아 있기에, 만저도 흩어지지 않고 쓸어버려도 없어지지 않을 때, 중심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고, 밖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리니’¹²²⁾

121) <珍原鎮山 有老僧信行 欲築精舍 以印月名之>, p.260. ; 2권, p.215~216.

122) 원순역해, 『몽산법어』, 법공양, 2008, p.81.

『金剛經五家解』에서는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주객의 자취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見識(妄念, 夢識)이 작용하여 마음이 일어나고 온갖 차별을 이루니 이 망념을 없애면 모든 像色이 사라지고 본원의 자리에 든다고 하였다.

마음이란 깊고 텅 비고 미묘하고 순수하여(沖虛妙粹)맑고 맑아 영명함(炳煥靈明)이 저 옛 거울이 스스로 본체가 텅 비고 아주 밝게 사무쳐서 걸림이 없음과 같은지라, 妙하여 이름이나 모양이라 할 것이 다 끊어지고 깨끗하여 능소(주관과 객관)의 자취가 없으므로 거울인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고 이르시니라. 안으로 根身(몸)과 밖으로 器界(이 세계)를 다 像色이라 한다. 阿賴耶識 한 생각의 망념이 몸과 이 세계를 변하여 일으키니, 만약 이 망념을 버리면 일체 경계의 상이 없으므로 상색이 원래 고하다 이르셨다.¹²³⁾

불교에서는 無念, 無相 無住를 근간으로 하여 마음속에 내재된 탐욕과 집착을 없애고 감정을 씻어내 본성을 찾는 해탈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속인에게 가장 큰 속박은 감정이지만 수행자에게 가장 큰 집착은 佛法이다. 선종의 조사들은 제자들이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할을 하거나 침묵 중에 心要를 부치거나 부처와 처사에게 욕을 퍼부어 감정과 지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차는 범어로 闕伽라고 하는데 원초의 뜻이 있다. 불교에서 원초는 무착바라밀로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순수한 본래의 마음을 의미한다. 차의 성품은 맑고 깨끗하여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시습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선의 세계에 이르고자 하였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없어 무심자공을 현현하고자 한 김시습의 맑은 순수는 차 한 잔에 더욱 투명해진다.

김시습이 차를 마시는 것은 텅 비어 맑게 비치는 마음을 관조하는 수직적 초월의 의지였다. 그것은 자신으로 돌아가 無念 無相 無住의 선의 경계에 몰입함으로써, 독선과 독락을 체득하고 자신을 비워내는 무심의 구현이었다. 이는 그의 삶의 근간이었고 그가 실천해야 할 초극의 가치였다. 김시습에게 있어 차를 달이는 일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선가의 차는 곧 깨달음이고, 차를 달이고 마시는 일 자체가 바로 선 수행이며 불법의 체현

123) 무비역해, 『金剛經五家解』, 불광출판부, 2003, pp.53~54.

이다. 차는 깨끗하고 우아하여 청담한 가운데 마시면 성정을 승화시킨다. 차와 선은 외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영적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상적 선경으로 인도한다. 또한 그러한 선경은 차인이 갖는 마음과 서로 통한다. 선경에는 깊이 있는 이념이 담겨 있고 차에는 맛의 이치가 담겨 있어, 차와 선은 서로 어우러질 수 있고 하나로 융화될 수 있다. 김시습은 차 한 잔을 마심으로써 망아의 선경을 체험하고 본원의 자리로 돌아가, 불생불멸에 이르고자 하였다.

차와 선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자연을 대상으로 그 性情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연을 통하여 청정한 심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일종의 자기 정화이며, 수행의 과정이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관조를 빌려 내면세계를 읊조림으로써 言語之意를 강조하는 선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차와 선에서의 자연은 정신의 자유를 얻은 경계를 뜻하기도 한다. 이를 소동파는 『장자』의 자연을 “완전한 정신적 자유의 획득,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됨과 동시에 자기 이외의 사물과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풀이 했고, 西晉의 곽상은 “밖으로 사물을 구함이 없고 안으로 자기에게도 기대지 않는(獨化) 완전한 경지를 자연”이라고 하였다.¹²⁴⁾ 밖으로 구함이 없고 안으로 기대지 않는 경지는 몰아일체를 통하여 자신의 진면목을 구체화시킨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경지(應無所住而生其心)”를 설하는데, 이는 무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경지를 이른다. ‘머무는 바 없이’ 때문에 세상사와 인간으로부터 초탈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내기’ 때문에 세상을 마주해도 아무런 걸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적인 체화는 삶의 일상을 獨樂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차가 생활인 김시습은 일상 속 차를 즐기는 한가로운 여유에 대하여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시들은 대부분 四遊錄에 많이 수록되어 있어, 그가 현실을 떠나 자연에 머물며 마음을 달래던 시기에 시가 창작되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세속을 떠나 산수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경물이나 한적한 사찰의 경계, 참선에 들어 수행하는 선의 경지를 읊은 시들이 대부분 이 시기의 것으로 시의 주된 작품세계를 이루고 있다.

124) 이은운,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 동아시아, 2008, pp.46~48.

閑意

煖日烘窓紙
 烏床釋硯水
 煎茶邀好客
 說偈逆禪僧
 出定看新雪
 經行擔小藤
 自從逃世網
 生事轉騰騰

따뜻한 햇빛이 창호지에 비추니
 검은 상의 얼은 벼룻물을 녹이는구나.
 차 달여서 좋은 손님을 맞이하고
 계송(偈頌)을 읊어 선승을 영접하구나.
 선정(禪定)에서 나오자 새 눈을 보고
 경행(經行)이라 작은 등(藤)을 메고 앉았네.
 스스로 세상 그물에서 도피한 뒤로는
 일을 남이 더욱 더 등등(騰騰)하구나.¹²⁵⁾

햇빛이 창호지에 비쳐 언 벼룻물을 녹이는 정경은 신선한 생동감과 함께 수행자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를 달여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송을 읊어 선승들에게 법문을 하는 소박한 산사의 풍경을 시적인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정을 마치고 눈을 맞으며 경행을 하는 산사의 수행은, 세상과 떨어진 구도의 삶을 如一하게 그리고 있다. 햇빛이 내리는 고요한 사찰의 선적인 정취가 차향에 날아오는 듯하다.

放言 (15-6)

爲人性疏散
 於事太多懶
 山月有燈燭
 松風有絃管
 閑中經數卷
 渴來茶七椀

사람됨의 성격 너무 방만(放漫)하여서
 일에 게으른 것 너무 많으오.
 산에 달이 뜨면 등촉이 있고
 소나무에 바람 불면 관현(管絃)이 있다네.
 한가하면 성경(聖經) 두어 권 읽고
 목마르면 일곱 잔의 차¹²⁶⁾를 마시네.

125) p.239. ; 2권, p.132.

126) 일곱 잔의 차 : 당나라 노동(盧仝)의 다가『茶歌』(走筆謝孟諫議寄新茶)에 “七椀不可喫”이라 하였으므로 여기에 일곱 잔의 차라고 한 것이다. “첫째 잔은 입술과 목을 적셔 주고, 둘째 잔은 고민을 씻어 주고, 셋째 잔은 무더진 붓끝이 풀리니 생각나는 글이 오천 권이나 되고,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이 솟아 평생 불평스럽던 일들이 모공을 통해 사라진다네, 다섯째 잔은 살과 뼈를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신선의 영과 통한다오.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두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일어나네.”

心當遊此樂
何暇較長短

마음은 이 낙으로 노는 게 마땅하니
어느 겨를에 길고 짧은 것 따지랴?¹²⁷⁾

그는 자신의 성격이 너무 방만하여 게으르다고 탓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즐기는 마음이 가득하다. 달을 등불 삼고 바람을 악기 삼아 경전도 읽고 일곱 잔의 차도 마시는 한가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만유와 일체를 이루는 物我不二의 구현이다. 달과 바람의 순수한 자연의 소리는 경전을 읽는 인위적인 소리와 섞여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져, 인위와 자연의 변별이 무애의 공간에서 별 의미가 없어진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으로 노는 게 마땅한데 옳고 그른 시비를 따지는 일은 부질없는 것이다. 시비분별을 다 버리고 차와 함께 일상의 삶을 풀어 놓는 시공의 몰입은 분별을 여윈 상태이다.

耽睡

竟日臥耽睡
懶慢不出戶
圖書拋在床
卷帙亂旁午
瓦爐起香煙
石鼎鳴茶乳
不知海棠花
落盡千山雨

진종일 누워서 잠을 탐하노라.
게을러서 문 밖에도 안 나갔네.
도서(圖書)는 책상 위에 던져 버려
권으로 질로 흩어져 있네.
질화로엔 향 연기만 일어나고
돌솥에는 차와 것이 부글거리는데
알지도 못하였구나, 해당화 꽃이
천산(千山)에 내린 비에 다 떨어질 줄을.¹²⁸⁾

몸도 마음도 얽매이는 것을 떠나, 편안한 일상을 추구하여 넉넉한 자유를 즐기는 김시습에겐 게으름 자체도 세월을 놓아 버린 樂이었다. 그야말로 김시습의 다사는 어떠한 가식도 형식도 구애 받지 않는 무애의 자유로움이었다. 정해진 생활이 없으니 차 생활도 격식을 벗어던진 그대로 한유한 일상의 자기체화이다. 이런 그의 모습은 까닭 없이 짓는 시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김길자, 『中國茶詩』, 현암사, 1999, pp.217~222.
127) p.97. ; 1권, p.79~80.
128) p.118. ; 1권, p.169.

謾成

早歲身強健	젊어서는 내 몸이 건강하더니
殘年病入脾	만년에는 신병이 뱃속에 드네.
徑行從所好	지름길 ¹²⁹ 로 가는 것도 좋아함을 따름이요
茶飯任便宜	차 마시고 밥 먹는 것 편한 대로 함이라.
木落山容瘦	낙엽 떨어지니 산 모양 수척해지고
庭空月色奇	뜰이 비어 있어 달빛이 기이하다.
呼兒供藥餌	아이 불러 약 먹을 것 가져오라 하고
困來且支頤	피곤함이 오면 또 턱을 고인다. ¹³⁰

참으로 유연하고 초연한 世외의 정감이 넘친다. 몸은 늙어 약을 찾지만 성현의 가르침에 매일 필요는 없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것도 내가 편한 대로 할 뿐이다. 낙엽이 떨어져 수척한 산만큼 내 몸도 수척해져 피곤하면 턱을 괴고 몸을 맡기는 한가로운 일상은 구속 없는 자유 그대로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그의 시 <眞佛庵>에 잘 나타나 있다.

以石名眞佛	돌 가지고 참 부처라 이름 했지만
菴中住老禪	암자 안에 늙은 중이 살고 있다네.
路回千嶂下	길은 일천 봉 아래로 돌아서 가니
人傍五雲邊	사람들이 오운(五雲) ¹³¹ 가에 가까이 있네.
水石心無累	수석(水石)이 좋아 마음에는 누(累)가 없는데
煙霞景自妍	연하(煙霞)의 경치는 절로 곱구나.
行童煮山茗	절 아이가 산차를 달여 주는데
貯月汲寒泉	달을 담아 찬 샘물 길어 오누나. ¹³²

자연은 인위에 어두워진 눈을 다시 청정하고 맑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일상

129) 지름길 : “直情徑行”이라는 말은 곧은 마음 그대로 점잖은 사람은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君子不徑)는 선현의 경계를 안 따른다는 말이다.

130) p.103. ; 1권, p.105~106.

131) 오운(五雲) : 하나의 구름이 오색을 갖춘 것. 선녀가 노는 곳을 말한다.

132) p.241. ; 2권, p.141.

에 찌든 때를 벗겨주고 소생의 원기를 북돋아 준다. 산꼭대기에 걸쳐 있는 구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산과 물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번거로움도 없으니 안개에 싸인 경치는 절로 좋다. 어린 동자승은 차를 달이니 샘물에 비친 달을 담아 물을 떠 온다.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달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비를 다투고 영욕에 집착하던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우치게 한다. 동자승은 차를 달여 내오고 찬 샘물 속에는 달빛이 들려주는 자연의 속삭임이 있다. 세속적으로 지향하는 욕심을 버리고 텅 비어 있으면서 팍 채워진 무와 유를 초월한 절대 긍정의 세계는 물아일체의 구현이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무심의 경지이다.

3) 茶情禪交의 산물

김시습은 현실을 떠나 방외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살았지만, 그가 모든 세인들과의 인연마저 끊고 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雪岑이란 법명으로 선승들과 인연을 맺고 교유도 나누었다. 그는 峻上人, 俊長老, 尋隱上人, 禪上人, 敏上人 등과 선교를 나누며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깊이를 더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들이 선사들과의 교분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듯이 김시습 역시 선사들과의 교유를 통해 선수행의 본원을 찾아갔다. 그의 시 <和宋少尹處儉韻>(3-2)에서는 유학자와 승려가 상종함은 본디 있었던 일이라 하여 사대부와 승려들의 만남은 불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儒釋相從本固然
李翱曾悟藥山前
政清終日應無事
參了空門那介邊

유(儒)와 불(佛)이 상종함은 본래부터 그러하여
이 고(李翱)도 일찍이 약산(藥山) 앞서 깨달았네.
정사 맑아 종일토록 응당 일이 없으니
공문(空門)의 부처 앞에 참여해도 무방하리라.¹³³⁾

이들이 이 같이 교유하는 데는 차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다담을 나누며 서로 친목을 도모하였고 차를 선물로 주고받으며 맑은 茶心을 나누었다. 차

133) p.228. ; 2권, p.81~82.

인들끼리 차를 만들어 나누고 다담을 즐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 一如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차로써 교분을 나누어 간다는 것은 차의 성품을 공유하고 그 뜻을 지켜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 一如의 마음이고 차인의 마음이다.

김시습의 문집 『매월당집』 <釋老>에는 승려들과 나눈 교유시가 여러 편 전한다. 그는 승려들과 교유를 나누면서, 수직적 초월의지를 통해 선의 세계에 들기도 했다.

김시습이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449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중에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송광사에 머물렀다. 이때 峻上人에게 불법을 배우게 되면서 불교에 침잠하게 된다. 김시습은 준 상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준 대사 [峻上人] 는 선문(禪門)의 노인이다. 처음에 호남 땅에 숨어 살만한 곳이 있어서 지팡이를 머물러 두기를 몇 해 하다가 도(道)의 힘이 성취된 뒤에는 운수(雲水)를 두루 돌아다니며 홀연히 서울에 들어오니 선비와 부녀자들이 바퀴살 모이 듯 하여 풍성(風聲)을 바라만 보고서도 휩쓸려 교화한 것이 그 같은 이가 없었다. 이에 이름난 재상과 잘 믿는 거사(居士)들을 통하여 아사(雅士)를 따를 것을 굳이 청하였으나 마침 큰 소원이 이루어졌기에 다시 호남에 놀러 갔는데 용모에 도골(道骨)이 있었다. 내가 임신년(壬申年) 여름에 지팡이를 조계사(曹溪寺)에 멈추었으므로 마침내 윗 암자에 있었는데 과연 들던 소문과 같았고, 곧 도를 사모하면서도 초탈(超脫)한 마음이 말하는 표면에 나타나서 매일 선에 들어가는 문을 케어 물어도 낭랑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전날 찾아 구경한 경치에 따라 두어 수 휘둘러 써서 푸른 봉우리 맑은 시냇물에서 자고 먹는 일미(一味)가 되게 하려고 붓을 잡아 달리었다.¹³⁴⁾

김시습은 송광사에서 준 상인을 만나 선의 관문을 뚫기 위해 범담을 나눈다. 김시습은 예전부터 준 상인의 명성을 들어왔으나, 직접 만나보니 과연 깨달음

134) “峻上人，禪門老宿，初於湖南，有可隱之處，住錫數年，道力既成，歷遍雲水，忽過京洛，士女輻湊，望風而靡，所化無同，乃因名宰及善信居士固請，因雅適大願訖，復遊湖南，容儀有道骨焉，僕於壬申夏，制頭錫曹溪，遂同住上社臺，果如素聞，其慕道超脫之心，著於語辭之表，每日扣問禪關，語琅琅然，因其曩日探翫景，却掃數聯，以資碧峯清澗眠食之一味，拈翰走爾”，<贈峻上人>，p.127.；1권，p.203.

의 경지가 걸림이 없고, 세속을 초탈한 도인의 경지 그대로였다고 칭송한다. 김시습은 매일 준 상인을 찾아가 禪門의 禪理를 묻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송광사로 준상인을 찾아가 선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갈등을 말하며 준연작시 20여 수 중 몇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贈峻上人 (20- 1, 4, 15, 17)

其一

南山紫翠鬱芙蓉
寺在曹溪第一峯
萬古乾坤雙草屨
百年身世短瘦筇
有時對月看僧話
何處焚香坐枯松
要識吾師眞面目
竹林西畔石橋東

남산의 붉고 푸르름 연꽃 모여 뻗뻗한데
절은 조계(曹溪) 제일 첫 봉우리에 앉았네.
만고(萬古)의 하늘과 땅에 한 쌍의 짚신뿐이요
백년 동안의 신세는 짧고 마른 지팡이뿐일세.
때로는 달을 대하며 중이 말한 것을 보는데
어느 곳에 향 피우고 고송(枯松)에 앉아 있는가?
우리 대사 참 모양을 알려고 한다면
대 수풀 서쪽 끝 돌다리 동녘에서일세.¹³⁵⁾

김시습은 준상인을 찾아 송광사까지 가서 그와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선법을 묻는다.

其四

只愛青山不愛名
青山相對可忘情
苔痕一徑白雲鎖
花影半窓紅日明
澗暗但聞泉浙瀝
峯回剩見月虧盈
葛藤三尺無人和
付與隔林幽鳥聲

한 주먹 맑은 향에 한 권의 불경이요
한 바퀴 외로운 달 한 개울의 물소리일세.
솔 속의 단 차 [甘茗] 가 황금도 천하게 여기고
솔 아래 멧집이 붉은 관복도 가벼이 보네.
아득한 안개 노을 [煙霞] 마음과 함께 깨끗하고
고와라 물 위의 달, 성품도 항상 명량하네.
한가로이 잠들어 종일 가도 오는 이는 없고
청풍만이 절로 와서 대 난간을 흔드네.

135) p.127. ; 1권, p.204.

其十五

半生江海友如雲
 今日相逢道味眞
 飛錫獨行潭底影
 敷床數息樹邊身
 四千經偈留胸臆
 百二山河轉一塵
 氣味蕭然無與話
 煮茶鑪水細粼粼

반평생을 강해(江海)로 돌아 벗이 구름 같았네만
 오늘 서로 만나니 도(道)의 맛이 참인 듯 하여라.
 지팡이 날리며 혼자 가는데 못 속의 그림자 지고
 평상 펼쳐 놓고 나뭇가에 한 몸 자주 쉬네.
 사천 권의 불경·진언 가슴속에 남아 있고
 백(百)하고 둘 [二] 되는 산과 내 한 띠끝로 변했네.
 기미(氣味)가 쓸쓸한 듯 함께 얘기할 벗 없는데
 차 끓이는 냄비의 물 가늘게 소리낸다.

其十七

參透禪關話葛藤
 列峯如戟碧層層
 尋根拔蒂君知否
 摘葉尋枝我不能
 藥杵聲中敲翠竹
 茶鑪影裏點紅燈
 自然會得禪家趣
 肯向傍人說上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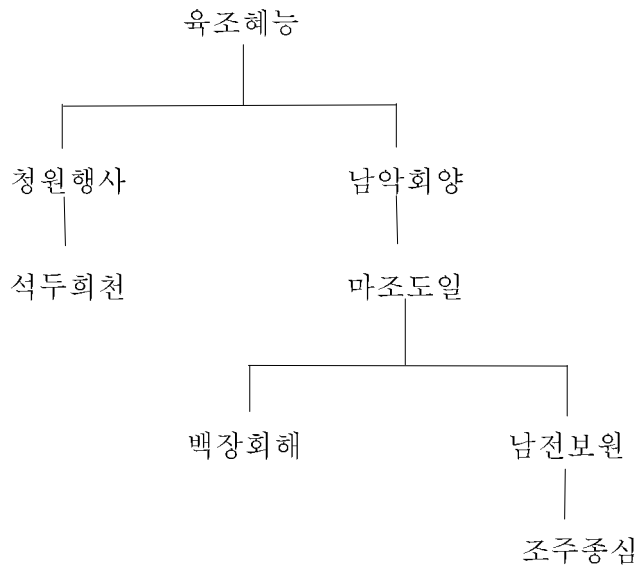
선(禪)의 관문 뚫으려고 갈등된 것 말하는데
 벌려 있는 산봉우리 창인 양 층층이 푸르렀네.
 뿌리 찾아 꼭지 뽑는 것 그대 아는가, 모르는가?
 잎새 따고 가지 찾는 건 나는 하지 못하네.
 약 방아 소리 속에 푸른 대 두드리고
 차 냄비 그림자 속에 붉은 등 켜 놓았네.
 자연히 선가(禪家)의 취미를 깨달아 알았거니
 즐거이 옆 사람 향해 큰 법 [上乘] 을 얘기하네.¹³⁶⁾

김시습은 반평생을 강과 산으로 돌아 구름이 벗이 되었지만, 준 상인을 만나
 도를 묻고, 그것이 삶의 참 뜻인 줄 알고 난 뒤에는 세속의 영욕에 관심이 없
 어졌다. 세속의 혼탁함으로 인한 번뇌를 잊고픈 마음은, 득의의 본래 면목을 깨
 우쳐 줄 선지식이나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선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초극
 의 관조적인 자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참된 깨달음을 얻원하는 구도자로서
 의 신념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136) p.127. ; 1권, p.205, 210, 211.

그는 “나는 준 상인을 안지가 오래인데 깊고 조용해 심지어 한가로워라, 정인사를 몇 번이나 찾아갔던고 일찍이 묘향산에 보내기도 했었지.(我識峻師久, 杳然心地閑, 幾尋正印寺, 曾送妙香山)”¹³⁷⁾라고 하여 그와의 만남을 위해 그를 여러 번 찾아갔었다는 것과 그를 몹시 그리워한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와 만나 나는 법담을 통해 선의 묘리를 터득하고, 사천 권의 불경과 진언도 집착하는 중생심에서 깨어나야 바른 법을 볼 수 있다는 선리를 설파하고 있다. 깊은 산사에는 얘기할 벗 하나 없었는데, 茶 끓는 냄비의 물소리는 오랜만의 해후에 대한 갈증을 씻어준다.

선사들은 차를 마시며 그들이 공부한 법에 대하여 서로 주고받으며 법을 점검하기도 한다. 그 유명한 일화는 조주선사의 “喫茶去”의 茶禪一如사상에서 유래한다.¹³⁸⁾ 조주종심선사는 동아시아의 선불교의 거장이다. 조주선사는 “古佛”이란 별명을 가진 최초의 선사이다. “고불”이란 별칭은 최상승의 법력, 완전무결한 정법안장을 상징하는 최고의 호칭이다. 조주의 법맥은 육조혜능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조도일의 문하인 남전보원선사에게서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법맥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137) 『四佳詩集』 卷之三十, 第十八, 寄峻上人.

138) 임해봉스님, 『茶와 禪 그리고 화두 話頭』, 월간다도, 2005, pp.158~201.

남전보원선사는 마조의 법제자 중 “平常心是道”를 가장 충실히 계승한 선장이다. 남전과 조주는 마조의 “평상심시도”를 심화 발전시킨 마조의 후계자들이다. 평상심이란 일상생활이 진리라는 뜻이다. 心은 우주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끄는 본래의 소박하고 순수한 근원적인 마음을 말한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고 즐거울 땐 웃는 마음이 근원적인 마음이다. 조주의 화두 중에는 평상심을 설파한 화두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喫茶去”이다. 어느 날 조주선사에게 두 남자가 찾아왔다.

조주 : 일찍이 여기 왔던 일이 있는가?

남승1: 예, 온적이 있습니다.

조주 : 茶나 마시게(喫茶去)

조주 : 일찍이 여기 왔던 일이 있는가?

남승2: 온 일이 업습니다.

조주 : 茶나 마시게(喫茶去)

원주 : 스님께서는 온 사람에게도 茶나 마시라 하고 와 본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茶나 마시라 합니까?

조주 : 원주야!

원주 : 예.

조주 : 茶나 마시게(喫茶去)

여기에서 “왔던 일이 있는가?” 하고 묻는 조주의 물음은 단순히 공간적 지리적인 방향이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미를 내포한 선문답이다. 질문하는 승려는 말과 행동을 분별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물었지만, 조주의 말에는 말과 행동을 떠나서 근원을 밝히는 日常事가 도라고 응하였다. 조주는 도라는 것은 말과 행동의 分別識에 떨어지면 그것은 망상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망상이 일기 전 평범한 일상생활의 소박하고 순수한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도를 찾으려 온 두 남승은 도를 찾겠다는 말과 생각에 집착하는 망상을 보이고 있는데 조주는 차를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도는 각자에게 있음을 통찰하라는 진리를 깨우쳐주고자 하였다. 원주 역시 남의 말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고 도

를 깨우치라는 충고의 뜻으로 깎다거한 것이다. 선은 집착과 망상, 구속에서 벗어나 일상사를 무심한 경지에서 행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한 것이다. 목마르면 차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일상사에 깃든 깊은 의미는 차와 선이 하나임을 설파하고 있다. 이것이 茶禪一味요, 茶禪一如의 사상이다. 차와 선이 하나인 범거량은 선사들의 주된 화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送尋隱上人歸故山詩卷 (5-2)

碧山深處結茅菴	푸른 산 깊은 곳에 암자 한 채 엮었는데
菴下澄澄萬丈潭	암자 밑엔 맑고 맑은 만길 깊은 못이로세.
行處巖從雲共去	가는 곳 되는데로 구름 따라 함께 가고
住時閑與月同龕	머물 때엔 한가로이 달 아래 절방에 함께 있네.
煎茶小室煙生廚	차 달이는 작은 방엔 부엌인 양 연기나고
采藥遠峯雲滿籃	먼 산에서 약 캐는데 들바구니엔 구름만 가득하네.
不二法門怎麼認	둘 아니란 법문을 어떻게 인식하나?
前三三與後三三	저 앞에도 셋씩이요, 저 뒤에도 셋씩일세. ¹³⁹⁾

이 시에는 심은 대사를 보내는 김시습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심은 대사와 깊은 곳에 암자 한 채를 짓고, 맑은 못물에 비친 구름과 함께 만행을 즐겼던 것 같다. 심은 대사와 달이 비치는 선방에 앉아 함께 茶를 달여 마시는 한가로운 삶이 엿보인다. 깊은 산에서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 가득 구름이 바구니 안에 들어왔다. 이에 둘이 아닌 앞도 셋, 뒤도 셋에 홀연히 눈이 뜨인다. 법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있지 않고 자연의 이치 그대로가 법이고 해탈이기 때문이다.

김시습은 일본 승려 외교관인 준 장로와 함께 차를 마시고 불법을 서로 얘기하며 지냈다. 준장로는 경주 용장사에 은거하고 있는 김시습을 찾아 갔다.

與日東僧俊長老話

139) p.134. ; 1권, p.229~230.

遠離鄉曲意蕭條
古佛山花遺寂寥
鐵罐煮茶供客飲
瓦爐添火辦香燒
春深海月侵蓬戶
雨歇山巖踐藥苗
禪境旅情俱雅淡
不妨軟語徹清宵

고향을 멀리 떠나니 뜻이 쓸쓸도 하여
옛 부처 산꽃 속에서 고적함을 보내누나.
쇠 차관에 차를 달여 손님 마심에 제공하고
질 화로에 불을 더해 향 태움을 마련하네.
봄 깊으니 해월(海月)이 쭉대 문에 비추이고
비 멎으니 산 사슴이 약초 싹을 밝아대네.
선의 지경 나그네 정의 모두 아담하니
오순도순 밤새도록 말하여도 무방하리라¹⁴⁰⁾

고향을 멀리 떠나 쓸쓸함을 달래는 마음은 김시습이나 준 장로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김시습은 다관에 차를 달여서 준 장로에게 내주며 고적한 마음을 달래었다. 茶를 마시는 김시습과 준 장로는 속세간의 명성이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담박하고 소담한 차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들이 즐긴 차 생활은 열린 의식 세계로의 나아감이었을 것이다. 정신과 마음이 지향하는 適意에서 茶와 선이 하나로 어우러진 부드러운 선교는 김시습과 준 장로가 밤새도록 나누었을 격 높은 범담의 경지이다.

洛山寺贈禪上人 (3-1,3)

一見清標似舊知
羹牆面目已多時
節操落落松筠態
容止昂昂鸞鶴儀
禪榻靜看滄海月
茶泉閑擾碧潭螭
從師問道他時去
積習玄眸肯刮鑿

언뜻 보아 깨끗한 의표(儀表) 옛 친구 같은데
면목(面目)을 사모한 지는 벌써 오래 되었소.
절조(節操) 크고 높은 모양 소나무와 대나무요
몸가짐 맑고 높아 난새·학의 의표로세.
고요히 참선 의자에서 창해(滄海)의 달을 보는데
다천(茶泉)에는 한가로이 푸른 못의 교룡(蛟龍) 흔드네.
대사 따라 도(道)를 물으려 어느 뎨가 가게 되면
검은 눈동자에 쌓인 백태 긁어내는 금칼 되시리.

質實人間萬事非
欲從莊列學三機

호리고 무지한 인간이라 만 가지 일 다 글렀는데
장자(莊子)와 열자(列子) 따라 삼기(三機)¹⁴¹⁾를 배우고자.

140) p.276. ; 2권, p.277.

浮生有恨風燈變
浪死何裨鷁鳥飛
天女供茶香廚淨
山猿擎鉢道腴肥
何緣恒聽無生話
石室松龕共爾依

든 인생 한 되는 건 바람 앞 등불인 양 변화하는 것
부질없이 죽는 게 새끼새 나는 데 무슨 도움되리.
천녀(天女)가 차(茶)를 받드니 향주(香廚)¹⁴²가 깨끗하고
산(山) 잔나비 바리때 받드니 도(道) 기쁨지고 살찌네.
그 무슨 인연 얻어 생(生) 없다는 말씀 늘 들으며
돌집 소나무 다락에서 그대와 함께 의지하리.¹⁴³

김시습은 낙산사선승에게 참된 깨달음을 염원하는 구도자로서의 면모와 선기가득한 선지식의 모습을 본다. 그의 크고 높은 절조와 밝고 높은 몸가짐은 불도의 묘리를 참구하며 참된 실상에 이르는 선객으로서 세속에 쌓인 백태를 긁어내는 法力이 넘친다. 김시습은 번뇌를 벗어나 得意를 깨우쳐 줄 선사와 함께 도를 묻는 수행의 길에 들어 그를 의지하고 싶은 간절함이 차오는 듯하다. 청량한 도량에서 법문을 들으며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정진하는 구도자로서의 잔잔한 선심이 그려지고 있다.

다음 시에는 김시습이 서른이 안 된 젊은 민선사를 그리는 심정이 가득하다.

贈敏上人 (3-3)

有客有客美如英
年未三十文藝精
翩翩雲鶴繼鍾王
穎穎驪珠優盛唐
白雲堆裏携我遊
偶然別我還神州

객(客)이 있네, 객이 있네, 아름답기 꽃과 같은
나이야 서른이 안됐네만 문예(文藝)는 아주 정숙하네.
펼 펼하기 구름에 고니라 종왕(鍾王)¹⁴⁴ 명필가를 계승하고
알알이 여룡의 구슬¹⁴⁵ 같은 것 성당(盛唐)보다 뛰어나네.
흰 구름 쌓인 그 속에 나를 이끌고 놀다가
우연히 나와 이별하고 신성한 땅으로 돌아가니

141) 삼기(三機) : 疑家, 疑德, 質士를 말한다. 『逸周書』 「五勸解」에 “政有三機 五權 汝敬格之哉 三機 一疑家 二疑德 三質士 疑家無援重 疑德無舉士 質士無遠齋 呼敬之哉 天命無常 敬在三機”라 하였다.

142) 향주(香廚) : 절의 부엌. 두보의 <岳麓山道林二寺詩>에 “增 劫宮牆壯麗敵 香廚松道 清涼俱”라 하였다.

143) p.135. ; 1권, p.234~235.

144) 종왕(鍾王) : 종은 위의 중요이고, 왕은 王羲之로, 모두 명필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145) 여룡의 구슬 : 여룡의 턱 아래 달린 값진 구슬. 『장자』 열여구편에 “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驢龍領下”라 하였다.

神州茫茫三千里
 遊絲紛紛惹行李
 遺我春愁千萬緒
 快哉遙遙向南浦
 南浦春波綠可染
 可洗一段春懷苦
 中年作惡知幾何
 那似別爾猿啼處
 十年浪遊山水間
 煙霞痼疾怕寒暑
 壯志未消筋力疲
 恰似瘦鶴空軒舉
 萬卷圖書老此山
 願子歸來吾遲汝
 他年煎茶石澗邊
 衫袖共拂青山煙

신성한 땅 망망하기 삼천 리나 되는데
 하루살이 어지러이 나그네 행장 들춰내어
 천 만 가지 봄 근심을 내게 남겨 주었네.
 장쾌하다! 떠나면 남포(南浦) 향해 가는데
 남포의 봄 물결 그 푸르름 물들여질 듯
 한 조각 봄 생각의 괴로움마저 씻어낼 듯.
 중년(中年)에 받는 괴로움 얼마인지 아는가!
 어쩔 잔나비 우는 곳에서 그대 이별함과 같아
 십년 세월 동안 방랑하며 산수 간에 놀다 보니
 안개 노을 고질 됐어도 차고 더운 게 겹나서
 큰 뜻이야 사라졌으랴만 근력이 하 피곤하여
 여윈 학이 공연히 높이 날려는 거와 똑같아.
 만 권의 도서(圖書)를 가지고 이 산에서 늙으려 하니
 원커니 그대 돌아오라, 내 그대를 기다리리.
 돌시냇가에서 언젠가 차를 끓일 그 적에
 옷소매로 우리 함께 청산의 연기를 떨쳐 보세나.¹⁴⁶⁾

객승이 찾아와 그와 같이 지낸 시간이, 흰 구름 속 신선한 땅인 듯 민선사에 대한 그리움이 자못 크기만 하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다시 민선사를 기다리는 애닦은 마음은, 언젠가 그와 함께 차를 끓여 마셨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도반에 대한 정이 가득하다. 나이는 어리지만 득의를 깨우쳐 즐만한 선기를 가지고 있는 민선사와 시간을 같이 나누고픈 마음은, 십년 세월 동안 방랑하는 중년의 괴로움을 떠나 안식을 찾으려는 간절한 바람이자 불도의 길을 걷는 도반과의 동행이었다.

김시습이 선사들과 선교를 나누고 다선을 즐기는 것은 불도의 성취를 간구하는 구도적 열정과 자기초탈의 의지였으며, 그의 삶을 충족하게 하는 근간이었다. 차와 선이 하나이듯 선승들과의 깊은 선교는 선을 논하고 삶을 여의는 茶情의 산물이었다. 차 한 잔에서 無心自空의 도를 체득하고, 無碍의 禪交를 나눈 김시습의 차생활은 선과 차를 하나로 어우르는 茶情이었다.

146) p.130. ; 1권, p.215~216.

4. 결론

김시습의 茶詩를 살펴봄으로써, 茶詩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고, 시의 내외적인 면을 살펴 김시습 다시에 있어 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았다.

茶詩에 대한 개념은 ‘차와 관련된 사물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여 차생활하는 자체를 읊고 있거나 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정서를 읊은 시’라고 정의 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제 14편 16수만이 다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김시습 다시의 형식적인 면은 김시습이 그의 시정을 담아내는 데 장형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불교적 관념을 내포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시, 객관적 물상을 주관적인 정물로 환치하는 묘사 등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의 풍부한 茶語들은 다채로운 그의 다사를 짐작하게 한다.

김시습 다시의 내용적 특징에서는, 세속을 멀리 하고 청정한 차 문화를 즐긴 김시습은 수직적 자기초극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속을 멀리 한 그의 청정한 음다문화가 권력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대부의 풍류적인 차문화와는 다르다는 관점이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거부한 것은 자기를 이기는 초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시습은 불법에 입문한 뒤로는 物我不二의 茶禪을 수행하였다. 차를 마시며 독락하는 그의 생활은 구도적 수행의 체화였다.

茶의 본성을 이해한 김시습의 다농다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茶와 일체감을 이루었고 茶의 본질을 추구하였다. 김시습은 茶를 통한 일련의 차생활 속에 茶의 정신과 성품을 그대로 실천하는 다농다사를 함으로써 茶人の 가치를 보여 주었다. 茶란 茶로서의 본질을 살릴 때 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시습에게 있어 차는 그의 삶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김시습은 雪峯이란 법명으로 방외적인 삶을 살면서 차 문화를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승화시켜 그만의 차 문화를 이루었다. 속세를 떠나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茶와 하나 되는 독선의 의지를 실천하였고, 독락을 즐기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었다. 茶는 그의 벗이자 道伴이며, 반려자로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지탱하는 실존적 존재였다. 김시습은 유람 자체가 선이라 생각하고 유람을 선의 영역으로 연장시켰다. 격식과 제도적 틀을 거부하고 깨달음을 향한 구도적 수행은 무심자공의 茶禪이었다. 그가 茶를 한다는 의미는 無念, 無相, 無住의 선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었다. 茶를 마시며 무심을 체득하고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야말로 삶의 근간이었고, 그가 실천해야 할 정신적 가치였다. 茶는 욕심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본래의 마음을 의미한다. 김시습에게 있어 茶를 달이는 일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茶와 선은 외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茶와 선은 하나로 융화될 수 있었다. 김시습은 茶 한 잔을 마심으로써 忘我的 禪境을 체험하고 本源의 자리로 돌아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는 무심자공의 체득을 현현하고자 하였다.

김시습은 현실을 떠나 방외적 입장에서 세상을 살았지만 선승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을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였다. 선승들은 그를 선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안내자로서 그들과 茶情禪交를 나누었다. 여러 선승들은 그를 불법의 세계 안에서 수행자의 삶으로 안내하는 도반이었으며 스승이었다. 그는 선승들과의 걸림 없는 禪交를 맺음으로서 無心自空의 묘리를 터득하였고 茶禪一如의 경지를 체득하였다. 산사의 수행자들과의 만남은, 자신을 성찰하는 요소가 되어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한 내적 성장의 기반이 되어 주었고, 자연을 마주하고 마시는 한 잔의 茶는 그들을 空寂의 세계로 이끌어 선의 본원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김시습에게 있어 茶는 그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었고, 그의 내면을 채워주는 실존적인 양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禪定에 들어 마시는 茶 한 잔은 일체의 번뇌 망상을 여의게 하고 무심자공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였다. 茶와 선이 하나이듯 茶는 단순한 풍류나 호사스런 기호가 아닌 선을 논하고 삶을 여의는 一如三昧로 가는 길이었다. 茶는 진솔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시습, 『국역매월당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김시습, 『매월당집』, 『한국문집총간』13, 민족문화추진회. 1988.
권근, 『양촌집』, 『한국문집총간』 7.
김종직, 『점필재집』, 『한국문집총간』 12.
변계량, 『춘정집』, 『한국문집총간』 8.
서거정, 『사가집』, 『한국문집총간』 10~11.
성석린, 『독곡선생집』, 『한국문집총간』 6.
원천석, 『운곡행록』, 『한국문집총간』 6.
유방선, 『태재집』, 『한국문집총간』 8.
이승소, 『삼탄집』, 『한국문집총간』 11.
이자, 『매월당집서』, 『한국문집총간』 13.
이행, 『기우선생문집』, 『한국문집총간』 7.
정약용,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286.
육우, 『茶經』, 태평양박물관, 1982.

2. 單行本

- 고순호, 『불교학개론』, 선문출판사, 1991.
국어국문학회편, 『한시연구』, 태학사, 1997.
강건기, 『대승불교의 가르침 깨침을 향하여』, 불일출판사, 1997.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 박이정, 2008.
강석근, 『한국불교시연구』, 이회, 2002.
김길자, 『中國茶詩』, 현암사, 1999.
김명배, 『한국의 다시 감상』, 대광문화사, 1988.
김명배, 『중국의 다도』, 명문당, 2001.
김부식, 『삼국사기 上』, 을유문화사, 1996.

김상현, 『한국의 다시』, 민족사, 1997.
 김종만, 『불교의 참맛』, 협신인쇄문화사, 1993.
 동아시아연구소, 『조주선사와 깍다거』, 차의세계, 2003.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상』, 이른아침, 2007.
 류수, 김주철, 『김시습작품집』, 문예출판사, 1988.
 무비역해, 『金剛經五家解』, 불광출판부, 2003.
 무산역음, 『한국역대고승의 다시』, 명상, 2000.
 석용운역음, 『한국차문화자료집4』, 초의, 2005.
 석용운, 『한국다예』, 초의, 1988.
 석용운, 『한국차문화강좌-차의 행다편』, 초의학술재단, 2004.
 석지현외 공저, 『茶禪一味』, 차의 세계, 2005.
 손오규, 『한국고전의 문예연구』, 월인, 2001.
 송재소,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한길사, 2005.
 신현락, 『한국현대시와 동양의 자연관』, 한국문화사, 1998.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심경호, 『한국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안진호, 『석문의법』, 법륜사, 1970.
 원순역해, 『몽산법어』, 법공양, 2008.
 윤철중 외 최진원 편수, 『韓國古典의 文藝的 研究』, 월인, 2001.
 이승남, 『집권사대부 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역락, 2003.
 이윤은,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 동아시아, 2008.
 이종찬, 『한국불가 시문학연구』, 불광출판부, 2001.
 이종호, 『매월당 김시습』, 일지사, 1999.
 인권환, 『한국불교문학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임혜봉편저, 『한국의 불교다시』, 민족사, 2005.
 정영선, 『한국 차문화』, 너럭바위, 1992.
 정영선, 『다도철학』, 너럭바위, 1996.
 정동주, 『한국차살림』, 이룸, 2003.
 조기영, 『한국시가의 자연관』, 북스힐, 2005.
 통광, 『초의 다선집』, 불광출판부, 1996.
 천병식, 『한국다시작가론』, 국학자료원, 1996.
 황패강 외 공편, 『한국문학작가론2 -조선시대의 작가 1-』, 집문당, 2000.

3. 論文

강지희, 「梅月堂 詩에 있어서의 內的 葛藤과 現實認識」,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梅月堂 金時習의 茶道觀 研究 - 茶詩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분남, 「김시습의 시문학 연구」,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윤섭, 「김시습 불교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9.

김윤섭, 「金時習 佛敎詩에 관한 小考 - 사유록 창작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문학회』 제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김은수, 「梅月堂詩研究」, 전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5.

김성수, 「다시를 통한 한중 음다문화의 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성규, 「15세기후반 집권사대부문학의 몇 가지 경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재익, 「설잠 김시습의 불교시고」,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주수, 「김시습 山居集句의 미학-산중 은일자의 소박한 消日의 서정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대동문화연구원, 2008.

대원스님(강신보), 「雪岑의 詩 <贈峻上人>에 나타난 ‘禪心’의 意味」, 『한국선학』 제13호, 한국선학회, 2006.

류시자, 「梅月堂 金時習의 禪詩 연구-佛敎思想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민병수, 「梅月堂의 詩世界」, 『서울대 인문논총』 제3집, 서울대학교인문대학, 1978.

박재홍, 「梅月堂金時習의 詠物詩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배규범, 「草衣意恂의 茶詩研究 - 茶禪一如의 시문학적 해명」, 「온지논총」 제14집, 온지학회, 2006.

백순화, 「다시문에 나타난 작설차의 고찰」, 성균관대대학원 석사논문, 2008.

송경섭, 「茶詩에 나타난 朝鮮開國 士大夫의 具顯世界小考」, 『한국다도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차학회, 2008.

- 심경호, 「김시습과 서거정」, 『한민족어문학』 제38집, 한민족어문학회, 2001.
- 심경호, 「채세옹(贅世翁) 곧 설잠(雪岑)의 구도적 삶」,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심미섭, 「梅月堂 金時習의 漢詩研究 - 그의 儒家意識과 관련하여 -」,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2.
- 심수연, 「매월당 한시에 나타난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심재섭, 「매월당 김시습의 한시연구」,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엄보성, 「김시습『매월당집』에 나타난 불교인식」,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주필, 「한국지성사의 자유인의 초상」, 『한국문화연구』 제5호,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2003.
- 이교선, 「매월당 김시습의 영사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덕진, 「儒敎와 佛敎의 生死觀에 대한 一考察」, 『보조사상』 제15집, 보조사상연구소, 2001.
- 이성애, 「韓國의 古典詩歌에 나타난 茶詩의 風流研究」, 『한국차학회지』 제4권 제2호, 한국차학회, 1996.
- 이원홍, 「초암차의 의문」, 『차의세계』, 2007.
- 이주연, 「梅月堂 金時習의 茶道 研究」, 성균관대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혜자, 「한국고전시가 속의 다도사상」,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진령, 「梅月堂의 遊覽詩에 관하여」, 『인천어문학』 13, 인천대학교, 1997.
- 임준성, 「매월당 김시습의 불교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임준성, 「禪茶一如의 詩境-梅月堂의 茶詩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임준성, 「매월당의 시세계-중정의 미학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장윤정, 「매월당김시습의 산수시연구 - 명산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정영선, 「우리나라의 다인들10-김시습」, 『설록』, 07호, 1994.
- 정영호, 「金時習 茶詩 研究」,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20집, 부산여자대학, 1999.
- 정상구, 「韓國茶詩에 表現된 禪思想에 관한 研究」, 『한국차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차학회, 1995.
- 정종대, 「金時習의 詩와 身世矛盾」, 『한국기술대학교 논문집』 제7권 제1호, 한국기술대학교, 2000.
- 정출현, 「서거정과 김시습 : 조선전기 사대부 문인의 두 초상」, 『동양한문학연구』 제21집, 동양한문학회, 2005.
- 조영호,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 : 김수온,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조인숙, 「조선전기 茶詩연구 -徐居正과 金時習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태성,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 『호남학연구총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 최은하, 「중국다시연구」, 군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혜진, 「매월당 김시습의 방외적 성격과 시 정신」, 『한국민족문화』 22,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 한소영, 「梅月堂 金時習의 詩文學 研究 - 遊湖南錄 詩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3.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학과	학 번	2008700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최 혜 경 한문:崔 惠 慶 영문: CHOI HYE GYU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1 송화마을휴먼시아 710-204				
연락처	TEL : 062)433-7208 HP : 010-6602-2923. Email : choungatea@daum.net				
논문제목	한글 : 김시습 茶詩 연구 영문 : A Study on Tea-Poetry of Si-Seup Kim.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 년 2 월 일

저작자 : 최 혜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